



時 計 塔

SIGETOP



2016년 7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3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발행인: 李健一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 亮 李元澤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就任辭

離任辭

신임회장 이 건 일(68)

회장 서 윤 석(68)



이 무거운 책임을 맡는 자리에 나오게 되니 우선 두려운 마음만 듭니다.

전임자 서윤석 회장님이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근래 드물게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제33차 학술회의 겸 동창회를 성대하게 치루신것을 거듭 축하 하는 바입니다.

이제 부터 한 해 동안 어떻게 이 막중한 임무를 최선을 다 하여 수행할 수 있을지 한참 고민 해 보았습니다. 이에 얻은 결론은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애정어린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연건동 캠퍼스에서 우리의 가장 빛나던 젊은 시절을 보낸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을 잇는 제일 강력한 고리라고 생각 합니다.

수십 년 전에 혹은 수년전에 우리는 더 넓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곳 미국 땅에 정착 하였습니다. 새로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곳곳이 자라 무성한 잎과 가지를 가진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까요? 우리 동문들이 보내신 정착기는 모두 비슷하실 것입니다. 저는 타 의 대 출신 의사 분들과 오랜 동안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 한 것은 우리 서울의대 출신들만이 가지는 특권, 즉 매년 열리는 학술회 및 총 동창회 모임 이었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서는 이 연례행사가 그저 별것이 아니라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나, 실로 이것은 별것(!) 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원 수가 모자라다거나 회원간의 응집력이 약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러한 연례 모임을 가지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우리 동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 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소중한 공통의 기억의 근원인 동창회를, 이 별것(!)인 동창회 연례행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보존하고 이어나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기는 하나 아직 젊은 세대들이 동창회에 남아있으니 동창회 또한 이들을 잘 이끌고 보살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은퇴하여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어서 은퇴하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은퇴 후 즐거움 중 최고봉은 누가 무어라 해도 옛 친구나 동창들을 만나 골프 한 라운드 돌고 나서 즐겁게 담소하며 금준미주(金樽美酒)를 즐기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 최신 지견을 얻을 수 있는 학술회와 의학 외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주는 non-CME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 입니다.

내년에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제34차 학술회 및 동창회를 LA 근교, City of Industry에 있는 Pacific Palm Resort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수준 높은 학술 대회, 골프와 관광 및 쇼핑, Getty Museum 견학, 그리고 non-CME에 좀 더 중점을 두어 많은 동문들이 한 두어 가지 이상의 인문학적, 미학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보들을 머리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국에서 혹은 이곳 미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저와 동창회 새 임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 하려고 합니다.

부디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선후배, 친구, 동문들이 함께 모여 이 이국땅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의 결과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무거운 책임과 함께 축복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Full Time이 요구되는 생소한 일이었으나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 어받거나 새로 생긴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기쁩니다. 국내외로 동창회를 오랫동안 이끌어주신 동아쏘시오의 강신호 선배님, 박용현 22회 동기님을 비롯하여 미주 동창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여러 동문들의 덕분입니다. 특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은사님이신 한기현 24대 전회장님께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위에서 직접 피부로 같이 느끼고 매 주마다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일을 멋있게 같이 처리하여 주신 사랑하는 아홉 명의 68년 졸업 동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고 처음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김진수 선배님, 바쁜 가운데도 참여하신 총무 신원석 동문님, 부회장 김병오, 조병선 동문님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잘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고마우신 이재승, 신백호, 신규호, 조세진, 한승신 동문님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며 찬란히 빛나는 별, 잔치날의 leader 백승원 동문님, 항상 숙제를 주신 남명호, 한창규 동문님들, 이선희, 오무연, 박종철, 장세권, 송경민 젊은 동문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각 분야별로 큰 힘이 되셨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해보면 장학금 기금의 확인과 보호, 개방적인 재정관리, 사무실의 Manual 작성, 함춘의학상, 함춘미주공로상에 대한 조언, 미래의 세대인 Green Project의 회원 자격 규정과 지원, 새로운 젊은 회원의 발굴, 경조사 참여, 학술회의 문제점의 개선 그리고 '시계탑' 발행과 버금가는 동창회가 주도 하는 Web-Site를 신설했습니다. Skype를 통한 동서를 연결하는 이사회의 성공, 또한 동서부를 망라하여 모든 북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원들과의 교류를 증대 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와 모교와의 유대를 확대하고자 노력했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워싱턴에서 미주 전지역의 동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루고루 참여하신 역사적인 33rd Medical Convention도 뜻밖에 대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치루고 나니 우리 동창회는 다시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우려만 하던 우리의 미래가 아직 희망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여 주시고 수 많은 찬사를 보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난 일년 간 심혈을 기울렸던 저의 모든 임원들은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동서부간의 연락을 주도해 주신 고마우신 김성환 42대 전회장님 내외분을 비롯하여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주셨던 여러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조의열, 김성수 선배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묵묵히 꾸준히 회비를 내신 수 많은 여러분과 기부금까지 보내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해안 선배님을 비롯하여 GP Fund와 장학 Fund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원택 편집장님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재를 맡으셨던 황창근 사장님, 어렵고 까다로운 많은 동창회의 일을 잘 처리하신 Mrs. Jamie Kim 사무장님과 그 일을 도와주신 김성곤 부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44대 회기의 맡았던 임무를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자축의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신임 이건일 회장단 회기에 또 앞으로 하실 일에 축복이 가득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44대 회기의 맡았던 임무를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자축의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신임 이건일 회장단 회기에 또 앞으로 하실 일에 축복이 가득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2016-2017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이건일(68)	(909) 727-7550	kleetraveler3@gmail.com
1st Vice President	변영석(69)	(716) 485-6211	stanbyun1@gmail.com
2nd Vice president	김성환(71)	(323) 979-1512	sunghwkim@yahoo.com
	최광휘(76)	(626) 818-4013	akchoi52@gmail.com
Secretary	김홍서(69)	(818) 618-9094	hong_kim@yahoo.com
Treasurer	김명원(68)	(714) 329-3500	myongwonk@gmail.com
Associate Treasurer	송창호(68)	(951) 217-2109	changhosong@gmail.com

Committee Chairmen

Finance	최 철(68)	(909) 560-2790	chulchoi@yahoo.com
Scholarship	오무연(89)	(201) 390-2202	mohpark@gmail.com
Associate chair	이선희(81)	(914) 844-6217	leesteinway@gmail.com
Fund Raising	석창호(72)	(917) 232-3500	changhsuk@gmail.com
Scholar. Fund Mana.	이명희(66)	(914) 844-7439	DocM4@aol.com
Research & Fellowship	조세진(71)	(410) 440-0213	cho3gene@gmail.com

Green Project	강현석(00)	(415) 470-1434	hyunseok_kang@hotmail.com
Publication	서윤석(68)	(419) 234-4154	younseokseo2004@gmail.com
By Laws	문대옥(73)	(302) 983-7669	dmaoon625@hotmail.com
Advisory & Exchange	이만택(58)	(215) 913-7519	mmtlee@hotmail.com
Nominating	서윤석(68)	(419) 234-4154	younseokseo2004@gmail.com
Associate Nominating	노영일(68)	(708) 214-4447	youngilro@comcast.net
Silver Project	신홍식(68)		hongshin15@gmail.com
Office Management	박찬호(72)	(216) 650-6059	chanhopark2003@yahoo.com
Charity	최영자(66)	(203) 733-9937	ychoikim@gmail.com
Website	주광국(68)	(716) 903-2199	kwangjoo@hotmail.com
Associate Website	남명호(81)	(301) 299-8894	lucy.nam@inova.org
Convention Co-Chair	윤병인(68)	(323) 833-2905	biyoon1944@gmail.com
Convention Co-Chair	이현령(68)	(818) 212-4978	peterhlee@sbcglobal.net
Scientific Chair			
Non-CME CO-Chair	Mrs. 김명원	(714) 524-7259	myongwonk@gmail.com
Non-CME CO-Chair	Mrs. 김홍서	(818) 618-9094	thk320@gmail.com

2015-2016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 시: 2016년 6월 2일 동부 오후 3시
장 소: Westin Hotel 타이슨스 코너, 버지니아
참석자:

이만택(58) 강창욱(61) 정정수(62) 한기현(63) 권정덕(64) 홍선경(64) 정길화(65)
김진수(66)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김 철(68) 서운석(68) 신규호(68)
신용계(68) 이건일(68) 주광국(68) 김병오(69) 김홍서(69) 강창홍(71) 강태수(71)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조병선(71) 조세진(71) 서인석(73) 박인영(75)
한승신(76) 남명호(81) 한창규(81) 신원석(88)

Proxy:

김용식(55) 노용면(55) 이희경(61) 송영두(62) 김태웅(63) 김택수(63) 최준희(64)
허선행(64) 임용규(69) 이성춘(70) 오동환(71) 석창호(72) 문대욱(73) 심완섭(73)
김원정(75) 박종희(75) 심인보(83) 조형기(92)

1. 성원 점검후 서운석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회장 인사 및 보고 (서운석):
 - 참석하신 모든 임원, 이사, 대의원 및 초청인사에 감사를 드림.
 - 지난 대의원회/이사회 초록에 대하여 수정없이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 새로운 동창회의 Website 신설: 구성원은 개인 소유가 안 되도록 주광국(68)Chair와, 남명호(81)Assistant Chair, 회장, 수석 부회장, 시계탑 편집장, 조의열(66)이 구성원임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제청이 있었음.
3. 차기 이건일 회장 소개와 회장직 승인 동의안 가부 표결 동의와 제청, 승인이 있었음.
4. 진행중인 Convention 소개
 - 신용계 (골프) Pre convention Golf는 Lansdowne Resort에서 6월 1일 2일 골프 대회 성황리에 마침을 보고함.
 - Convention Chairs (김진수 66, 조병선 71) 보고: 33회 Annual Scientific Convention은 Westin Tyson's Corner Hotel에서 6월 3일과 4일에 열림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Non CME Program 보고: Senior에 유익한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6월 3일과 4일에 열릴 것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음.
 - Scientific Committee (한승신 76, Chair) 보고: Convention Scientific program theme은 New Horizons In Medicine 으로 Personalized medicine, Stem cell research and Regenerative medicine, Molecular and 3D/4D imaging.
 - CME Program은 University of Buffalo의 신규호(68) 동문의 주관으로 금년에는 extra ordinary 한 \$300이 소요가 되어서(100명)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번의 credit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CME credit이 아니고, form을 보내서 받는 방식임을 보고함.
5. 합춘 미주 공로상 발표:

미주 합춘 공로상에 대한 서운석 회장의 추천 현황보고 (동서부 아울러) 3분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서울선발위원회가 Convention Banquet에서 수상할 예정이며, 신청한 세 분 모두 수상이 됨을 발표함.

 - 감사패: 노용면(55), 김상우(68), 이원택(71), 서인석(73), 심인보(83), 한창규(81). 젊은 우수 발표자 표창(동아쏘시오 협조) 6명의 GP 회원과 회원 2세 참가자가 포함 되었음.
6. 재무보고 (주광국 68): 회계보고와 예산보고를 하였음. 질문과 제청을 거쳐 승인됨.
7. 총무보고 신원석(88): 보고 사항 없음.

Committee 보고

- Financial Committee (최순채 66 위원장):
- 서인석 회기(2014/7/1-2015/6/30) 회계보고가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표결은 없었음.
 - 작년에 장학기금 \$15,000을 fund management로부터 이월된 것을 사용 후 남은 \$10,609을 general fund에서 scholarship fund로 돌려 놓았음.
- Charity Committee (최영자66 위원장):
- The NY COCO organization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and Outcomes) was the recipient of 2015 charity donation (\$3000).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66 위원장):
- 2016년 1월 1일 current value : \$253,834, General fund에서 \$10,609 작년 회기에서 \$15,000 추가 인출한 것에서 사용 후 다시 받았음.
- Scholarship Committee (오무연 89 위원장) 서면보고:
- 서울의대 학생들 대상 장학금, 5/10 students selected for SNUCAANA scholarship, 2/4 students selected for Taewoong Kim scholarship. 가을 학기 장학금 홍보 시작됨.
 - 서울의대 졸업생들중 미국에서 higher degree schooling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application 권하고 있음.
- Publishing Committee (이원택 71 위원장):
- 현 편집장은 7월 1일 부로 새 편집장 서운석 동문에게 인수인계하기로 하였고 편집장이 바뀌어도 시계탑은 현행 편집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질문 후 제청을 거쳐 승인됨.

- By law Committee (노용면 55 위원장):
- 현 노용면 위원장의 사임으로 신임 위원장 인선은 차기회장단에 일임함.
- Research and Fellow Committee (조세진 71 위원장):
- 합춘학술상에 설립과 진행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음.
 - Research 하는 동문이 기대하던 합춘의학상이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지만 힘들어져서 작년부터 미주 동문들만을 위한 미주 합춘공로상이 시작이 되었음.
 - 서운석 회장이 모교를 방문하여 제시한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1회의 수상자는 1명(이만택) 이었으나, 2회(금년)에는 세 분의 수상자로 시계탑 편집위원회, 조세진(71), 김의신(66) 이상 세 분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음.
- Nominating Committee (서인석 73, 위원장):
- Nominee for 2017-2018 president: none, refused

Nominees for 2016-2019 board of directors: 송영두(62) 추재욱(63) 한기현(63) 권정덕(64) 최순채(66) 신용계(68) 한민우(75) 한승신(76) 신원석(88) 새로 임명되는 10명의 Board Members 승인 동의를 거쳐 제청함.

*7월 1일 시작되는 이건일 회장단의 임원과 새 Committee Chairs를 발표함. 동의를 거쳐 제청함.

Green Project Committee (남명호 81 위원장):

- Green Project Member에 대한 정의는 50세 이하로 졸업 후 20주년 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Honorary GP에 포함되는 것은 희망자에 한하기로 하였으며, GP White paper member survey 보고가 있었음.

- Fund Raised Amount 현황 (>\$13,000)과 GP member에 대한 convention 경비는 일인당 최고 \$700까지 보조 하기로 함.

Silver Project (김철 68 위원장):

- Washington DC area tour는 6월 4일 half day(스미소니언 박물관), 6월 5일 full day tour(세난도 드라이브, 루레이 동굴, 토마스 제퍼슨 생가 방문)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함.

결론사항으로,

- 합춘 공로상, web-site 신설, 젊은 세대 표창장, 컨벤션은 약 175 동문, 총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중임.
- Old business와 New business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없었음.
- 이건일 차기회장의 공식 인사말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서운석 회장의 지난 1년동안 도와 주신 임원진과 여러 동문들께 감사의 말씀이 있을 후 폐회를 동의와 제청으로 마무리가 되었음.

Prepared by 총무 신원석(88)

시계탑 편집회 회의록



편집회의 후 연수중인 학생들과 함께. 참가학생 12명 이름; 이에림, 양은규, 오유정, 김진영, 이자경, 김종업, 서정민, 윤준필, 신상원, 이한재, 김예은, 임재현

시계탑 편집회의가 2016년 7월 16일 뉴저지의 Fort Lee '풍림'에서 열렸다. 참석자에는 서부의 이원택은 전화로, 신임 편집위원인 김정아(76)와 부군 한승신(76) 동문,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광, 서인석, 이선희, 서운석 편집위원들이다. 여름 Clerkship으로 체류중인 서울의대 졸업반 학생 12명이 오무연(89), 강민중(91, Yale University Hospital), 김태곤(2001, Yale University Hospital)의 소개로 편집회를 방문하여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제1회 우수 작품상 모집을 7월호 원고부터 시작하여 동문들의 기고를 장려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현재 보관중인 시계탑 편집위원회가 받은 합춘 미주공로 상금을 그 기금으로 하였다. GP 부분에도 가능하면 2명에게도 상을 주기로 계획한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앞으로 많은 동문들이 원고를 보내주기를 희망한다.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체험기, 등 부분은 등수를 만들지 말고 평등하게 하지만, 농담골목, 사진전은 전과 동일하게 1, 2, 3등으로 구분하며 총괄하여 내년 6월에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원고는 Convention에 따른 원고가 많아서 16면을 채우는데 충분하였고 내년 3월 행사광고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제안하였다. 이흥빈 동문의 원고가 표준철자법에 맞지를 않아서 편집장이 따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최순채 동문의 '스카이다이빙'은 꼭 칼라사진이 함께 들어가도록 확인했다. 타 대학 출신으로 저서를 홍보하실 분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광고료를 받고 그 원고를 편집장이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아 신임위원이 지적한 우리 '시계탑' 첫면 이를 표지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또 종이 질이 더 좋기를 바란다고 했다. 표지에 우선 새로운 변화를 하되, 최소한 칼라로 장식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살리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종이의 질은 비용관계로 곤란하다.

신임 편집장은 시계탑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사항인,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 내용은 피하고 절대적으로 표준 철자법을 사용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지나친 자기 자랑, 남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동창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원고는 사양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기념촬영 후 4시경에 회의를 마쳤다.

기록: 편집을 맡으면서 서운석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한용현(48) 동문 90세 생신

한용현 선배님의 90세 생신을 맞아 60여명의 친구, 친척 여러 후배 동문들과 함께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30여년을 뉴욕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한 후에 플로리다 팜비치에 거주하고 계신 한 선배님께서 은퇴 후 시작한 오일 페인팅은 여러 차례 그룹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골프와 브릿지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부인 박경희(서울음대 졸) 피아니스트도 팜비치 장로교회에서 한국학교 콘트레이징 콘서트, 포트 라데일 감리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yhanmd@yahoo.com Tel: 561-624-2924

사진: 아들 James, 딸 Stella와 함께한 90세 생신파티에서.



61년, 졸업 55주년 기념문집 "傘壽(산수)에 돌아본다" 발행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자랑스러운 金祝祭)을 5년전에 발행한 바가 있는 15회 동문들이 5년 후 또다시 새 문집을 지난 6월 8일 발행하여 화제에 올랐다. 서울의 심영보 동기회장이 주동이 되어 약 35명의 동기가 쓴 글이 담긴 귀중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작품들이다. 대부분이 수필이지만 월간 '시문학'을 통하여 등단한 정두현 시인의 작품들이 돋보였다. 최규완 교수의 '인류 유전학'에 대한 내용, 이희경 님의 '한글과 Korea를 사랑한 Homer Hulbert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보면 감동 하는 귀중한 글이다. 문필가 강창욱, 황현상 님의 글, 또 한수용 님이 소개한 '시인 한용운'에 대한 글은 그 넓고도 깊은 연구에 놀랐다. 한혜원 님의 음악강좌, 서울에 사시는 신요철 님의 '마지막 인사' 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성경구절이 가장 가슴에 남는다. 또한 정신과를 하시던 고 김광일 교수 (사망 2014년 12월 12일)가 2011년 8월 24일에 쓴 '남기고가는 글'은 아름다운 유언같이 인상적이다. 모두가 80세 인생을 보람 있게 사시는 국내외 동문들의 주옥같은 60여편의 글들과 삽화가 담겨있다. 다른 동기들은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다. 해부학 시체실 앞에 '우리는 감사한다' 라는 비석을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15회 동기분들이다. 문집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글: 서운석

현상 님의 글, 또 한수용 님이 소개한 '시인 한용운'에 대한 글은 그 넓고도 깊은 연구에 놀랐다. 한혜원 님의 음악강좌, 서울에 사시는 신요철 님의 '마지막 인사' 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성경구절이 가장 가슴에 남는다. 또한 정신과를 하시던 고 김광일 교수 (사망 2014년 12월 12일)가 2011년 8월 24일에 쓴 '남기고가는 글'은 아름다운 유언같이 인상적이다. 모두가 80세 인생을 보람 있게 사시는 국내외 동문들의 주옥같은 60여편의 글들과 삽화가 담겨있다. 다른 동기들은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다. 해부학 시체실 앞에 '우리는 감사한다' 라는 비석을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15회 동기분들이다. 문집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글: 서운석

권영조(72)동문 '노자의 도덕경, 동서양의 만남' 발간



미시간에서 35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다 2년 전 남가주로 은퇴한 권영조(72) 동문이 지난 7월 16일 본인이 거주하는 라구나 우드의 클럽하우스에서 약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외손녀의 돌, 본인의 칠순 잔치를 겸해 본인이 편역한 「노자의 도덕경, 동서양의 만남」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지난 10년간 대장암과 싸우면서 더욱 더 노·장사상에 심취한 권 동문은 상선약수(上善若水), 위무위(爲無爲), 지족불욕(知足不辱), 등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설을 해 주었다.

동문 자제 소식



허선행(64) 동문의 자제 Warner King Huh, MD가 지난 4월 22일 미 백악관에 초대되어 부인암의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전망 및 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소식이다. Warner Huh, MD는 현재 Professor in an endowed chair and Director, Division of Gynecologic Oncology at University of Alabama in Birmingham 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세계 40여개국 및 UN 본부에 초대되어 강의한 경력이 있다.

남가주 지부 소식

남가주 지부 선후배 친교의 밤이 오는 2016년 8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Old Ranch Country Club at Seal Beach에서, 또 2017년 신년 하례모임은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Oxford Palace Hotel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하셨다가 참석하셔서 즐거운 만남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8월 6일(토) Hollywood Bowl에서 가족의 밤, 노동절 연휴 Mammoth Lake에서의 가족 캠핑 등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로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연락 드리겠습니다.

동문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동문회 운영이 개선되고 있으며, 동창회비와 Donation을 보내실 분은 회계 백지혜 동문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ennifer Baik, MD; 300 South Hobart Blvd. # 301 Los Angeles, CA 90020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남가주지부 동창회장 김동훈 올림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최영수(62)동문 별세

인디애나 주 Granger에 최영수(마취과) 동문께서 숙환으로 지난 4월 30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옥수미(산부인과) 여사와 1남 2녀의 자녀와 손주 5명이 있습니다.

양찬기(63)동문 별세

뉴욕주 버팔로에서 활동하다 십여년전 은퇴후 플로리다 클레르몽 올랜도에 서 거주하시던 양찬기(방사선과) 동문께서 지난 6월 21일 별세하셨습니다.

채규철(59) 동문 모친상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한 채규철(59) 동문의 모친 김일녀 권사님께서 지난 7월 18일 106세의(1910년 10월 21일생) 일기로 별세 하셨습니다.

나수섭(50)동문의 영문 자서전

A Lone Pine Road: Atonement

Autobiography by John Soosup Lah, M.D.



지난 5월 말 나수섭 님은 90평생을 기록하는 영문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번 Convention에서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에 직접 책소개를 하여 많은 동문들을 감동시켰다. 1928년 평안남도에서 출생, 일제 강점 시절의 성장과 교육,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의 김일성의과대학 시절, 자유를 찾아 월남, 서울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졸업(1950)과 동시에 돌발한 6.25 참전, 공군군외관, 대한민국 총무무공훈장, 첫번째 1955-58년 미국에서의 교육과정, 젊었을 때의 로맨스, 결혼, 카톨릭 의과대학 교편, 1969년 두번째 미국 교육과정과 이민, 개업의, 1983년(만53세) 미국 내과학 전문의 취득, 2014년(86세) 은퇴, 평생에 걸쳐 투지와 땀으로 이룩한 역경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모든 눈보라 비바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험한 바위틈에 우뚝 솟아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에 그의 인생을 비유했다. (사진 참조) 그동안 만났던 국내외 많은 학계의 의료인들과의 이야기,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일화, 자식과 가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독자를 사로 잡는다. Detroit Michigan, Harper Grace Hospital에서 1972년 8월초 인턴과정을 시작하던 본인은 당시 Medical Oncology Fellow를 하시던 저자를 처음 뵈 기억이 난다. 그 후, 우리 시계탑에도 가끔 글을 쓰셔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한 권의 책에 세밀하게 모든 것을 서술하신 정력과 기억력에 놀랐다. 그리고 44년 전과 조금도 다를 없이 끈고하고 건장한 모습에도 놀랐다. 이제 다른 분이 할 수 없었던 이 귀한 책을 출간 하시었다니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경하를 드린다. 특히 영어로 출간이 되어서 좋다. 저자의 가족, 아들 손자는 물론 우리 의료인 이민사에 관심이 있는 후세의 모든 분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의 연락처를 첨가한다. (글 서운석)

Email: jslah2228@gmail.com

Address: Dr. Soosup Lah / 608 Copperhead Circle / St. Augustine FL 32092-2733

저자의 소감 (나수섭)



나의 일생은 나름대로 특이한(unique) 여정이였다. 자라난 가정환경, 일본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겪어야 했던 민족적 수난, 이어진 이른바 조국의 해방은 기이하게도 선량한 우리 민족에게 미증유의 수난의 근대사를 안겨주었다. 지금 이날까지도 하나의 백의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아직도 그 분할이 고정화 되고 있음을 볼 때 늘 가슴이 아프다.

8.15가 있었기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 사태는 결국 나로 하여금 우리 가문에는 역사에 없었던 이민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미국시민이 되어서 살아 오면서 이제 노년에 이르니 걸어온 수난의 여정을 글로 써서 남기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 왔기에 만시지탄이 있으나 비로서 미친한 자서전을 써 내게 되었다.

영어로 쓴 이유는 첫째 영어권에 들게된 우리 후손에게 못 다한 가훈과 교훈을 남기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관하여 무식한 미국인들을 계몽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나는 1946-47년 평양에서 의과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을 등지고 월남하여 1949-1950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였고, 그간 같이 살아온 말 없는 동창, 동지들을 대변하는 뜻에서 이 글을 내 놓는다.

The Introduction/Review of A Book

Wandering in the 'DMZ'

- Authored by 서경석 Kenneth K. Suh, M.D. / ksuh2001@yahoo.com
- Published by 'iUniverse' / www.iUniverse.com / 252 pages / \$16.95



I've known Dr. Ken Suh(63) who used to WRITE in passion IN ENGLISH for such a compassionate PURE and FLUENT story, touching and moving others for pure and fluent minds.

I expected him to have, sooner than later, a book published. And, I am so amazed, voila, to have one of its first edition volumes published in mid-May, this year.

He is one of my class(63)pals, presently living with his wife Alice in Denver retired from upstate N.Y. as an hematologist-oncologist to nearby his grownup kids; now and then for them yet to commute to SoCal for happy-go-lucky babysitting, happily-ever, the other side grandkids there besides theirs of Denver's.

'DMZ' would remind anyone, without any second thought, of geo-military a term, Demilitarised Zone.

However, by him, it's characteristically of 'CULTURAL' DMZ.

He offers glimpse into the resilient cultural blend uniquely presenting short fictions and nonfiction essays, reminiscing our generation's bitter enough past and, at the same time, sweet enough nostalgia being savoured and smiled aloud. Those're explored and depicted as unarguable a clashes and conflicts those we educated immigrants all have unavoidably encountered, and yet bitter-sweetly experiencing, say, apparently as trapped in the 'Cultural Demilitarised Zone'.

We/he and I are of quiet a 'pro-pot' sentiment, not only to mention for being stringent a medical, but also did reluctantly have initiated the friendly a 'happy smoke', puffing hemp/cannabis so mildly, needless to say, a recreational.

I'd impressively think it's very worth having a volume, and enjoying and trying to be of another passionate 'pure and fluent' mind.

이홍빈 H.Binn Lee, M.D. / '63



Dr. K.K.Suh and his wife Alice on the left
Dr. H.B.Lee and wife Bette.

(사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과오없이 44회기의 중책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옮겨놓으면 앞으로 동창회 운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광국 재무님.

(주광국 재무): 재정적으로 수입에는 회비 7만5천불, 학회 수입이 9만불, Donation이 4-5만불 정도. 금년에는 도네이션이 아주 많았어요. 결국 모든 지출을 계산하고도 돈이 남아서 장학기금에 1만100불을 유사 이래로 처음 우리가 넣었어요. 그런데도 약 2만5천불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확실한 것은 며칠 더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우리 서회장님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박수)

(신용계 골프회장, 부재무): 그 남은 돈도 장학금에 보내면 어떨까요?

(사회):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돈을 조금 남겨서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이 다음 분들이 일을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의 행사는 여러면에서 행운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날씨도 그렇고, 또 금년에는 국내의 여러 동문들의 협조가 지극하여 유래없이 대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동창회 일에 우리처럼 땀 흘려 뚝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화자찬이지만). 68년도 신용계, 주광국, 김철 이 삼총사 덕분에입니다. (ㅎㅎ) 그리고 제갈공명이신 김병오(69) 동문님이 이웃으로 이사를 오신 것도 동창회를 위하여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GP(젊은 세대)를 돕는데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힘이 되어 주신 남명호, 신원석 동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행담당 김철 동문의 말씀부터 들겠습니다.

(김철): 네, 여행에는 IX관광, Luray Cavern, Tomas Jefferson 생가 방문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불평 하나 없이 잘 참여해 주셨어요. 첫날은 54명이었는데 한분도 빠짐없이 제 시간에 정확히 행동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참가자가 많아서 벌금 한 푼도 없이 오히려 200불 정도 남았습니다. (박수.)

(사회): 다음은 김병오 부회장님.

(김병오): 저는 외로운 회장님을 동무해드린 것이 임무였습니다. 혹시 회장님 유고(ㅎㅎ)시에 제가 맡아야 하니까 그것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ㅎㅎ)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군요. (농담입니다).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한 가지 나이가 연하인 학장님을 비행장에 마중을 나갈 때 좀 어색했지만 모교를 사랑하고 그 직책을 존경하는 마음에 나간 것은 참 잘한 것이었지요?

(사회):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심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영 의무 담당님.

(박인영 의무담당): 회장님이 이번에 계획을 얼마나 철저히 하셨던지 행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에 경우까지 빈틈없이 생각해서 의무담임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나이가 90이 되신 분들은 물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지 않았습니까? 참가 인원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혹시 건강상 문제점 특히 식곤증에 의한, 식사 후 포만감 등으로 야기되는 건강의 문제조차도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박수 박수)

(사회): 제가 1년전 중책을 맡았을 때 저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다행히도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는 뉴저지의 24대 회장을 지내신 한기현 선배님께서 제일 먼저 운영에 필요한 요점을 알려 주셨지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눈여겨보니 복잡한 친구회원들간의 (GP)문제, 동서부의 동문간의 합촌공모상 등 불협화음, 사무실의 운영에도 이해가 쉽게 안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동창회의 회계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

오지를 않았습니. 이 부분을 저의 회기부터는 가능하면 교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동창회 일이 혼자서는 잘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소가 동의하는 공통 이득점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임무로서는 우선 Fund를 많이 모금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서 노소 동문들간의 화목도 도모하고, 물론 공약을 드렸듯이 실리를 알뜰히 해야 된다고

동창회를 위한 대담(對談)



장소: "우래옥" Vienna, Virginia 일사: 2016년 6월 27일
참가자: 김병오(69), 조병선(71), 신원석(88), 주광국(68), 김철(68), 신용계(68), 박인영(75), 서윤석(68) 부부, 남명호(81) 추가: 김진수(66)부부
사회 진행 및 기록: 서윤석

런 처지의 저를 실제적으로 돕겠다고 최초로 손을 내미신 고마운 동문이 있습니다. 자! 이 고마우신 우리 신용계 동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신용계 골프회장): 제가 재무를 처음 한 달을 맡았다가 화가 나서 포기하고 골프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선 한 일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골프장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이구나 서회장께서 벌써 계약을 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골프 값이 너무 비싸요, 라운드 당 129불, 2일간 매일 50명 골퍼가 쳐야 하고, 또 호텔을 36 room을 써야 합니다. 숙박료가 199불이었습니다. 큰 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 뉴저지에서 얼마나 참가했는가를 물어보니 28명이라고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며 걱정도 되고 "서회장님이 너무 서둘러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ㅎㅎ)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잘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90%가 해당되니까 32 rooms 45명/매일 Golfer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우리 동기들 8명은 무조건 들어가 부부가 치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두들 기꺼이 찬성했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 동기들이 5-7명의 부부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서회장님이 국제전화를 하니까 모두들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식사때에는 골프를 안 치시는 분도 합하니 전부 57명의 참가 인원이 됐지요. 와인 식단을 잘 검토하고 결국 와인까지 다 합해서 정산을 하고 나니까 200불이나 남았지요. 상품도 너그럽게 회장님이 주시고해서 잘 행사를 마쳤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처음에 걱정하던 이 비싼 Resort에서 하기를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서회장님의 처음 생각이 옳았음을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에. (박수 박수) 참, 한 가지 다음부터는 골프 홀마다 개업하시는 신원석 동문같은 분이 스폰서를 하시면 어떨까요(ㅎㅎ).

(주광국 재무): 골프 리조트 장소와 Convention 장소가 따로 있어서 좋았어요, 20분 떨어져서 움직이는 데 라무진 서비스로 조금(200불) 돈을 냈지만 그런대로.

(Mrs. 서윤석): 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 리조트 시설을 좋아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우리 체면이 좀 서더군요. 음식도 맛있고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정도는 돼야겠지요.

(사회):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 저는 이 책임을 맡으면서 모든 우리 동문들을 위하여 일을 잘 해야

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보고를 명확하게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공금을 개인의 통장보다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주광국 재무와 저는 동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하여주셨고 CME를 하는 과정에서 예년에는 4-5천불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150불에 신규(68) 동문이 해결했습니다.

컨벤션을 하는 데 여행사가 개입하는 것을 절악하기 위하여 필수책 배제했습니다. Christmas Ball도 워싱턴 지역의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같이 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그 비용도 절약하면서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금년도 워싱턴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호텔 측 사무차로. 이 사실은 비밀이라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ㅎㅎ)

(주광국): 참고로 그것이 우리 Convention Deposit과 혹시 혼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ㅎㅎ)

(사회): 우리 신원석 동문이 워싱턴의 서울대학교 동창회에도 총무여서 큰 도움이 되었지요. 젊은 세대를 위하여 한창구 동문과 같이 물심양면으로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성 동문이신 남명호(81) GP Chair 한마디 하시지요.

(남명호 GP Chair, WebSite Associate Chair): 우선 한 잔 마시고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주위에 저는 동기들도 없고, 그런데 차츰 박력이 있고 신뢰와 결단력이 있으신 서윤석 회장이 계셔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Leadership이 모든 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뉴욕 사무실 운영에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주광국 재무): 회장단을 해마다 돌아가며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항상 지금까지 동창회 사무실이 있어서 전화도 받고 대담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몇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80퍼센트 동문이 인터넷보다는 전화와 우편을 선호하십니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야 움직일 수 있지요.

이번 모임이 그 성공적인 결과가 된 것은 바로 이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대학보다 동문들의 숫자도 많고 아시아사피 우리가 지금 Website를 신설하고 있지만 아직은 동창회보도 받아 보시기를 원하시는 동문이 많고 그분들이 회비를 열심히 내십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나이 드신 분들(80%)을 보세요.

(사회):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현재의 뉴욕동창회 사무실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가 성공적이었다면 그것은 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인쇄심을 가지고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한 몇 년간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을 줍니다. 그러면 조병선 부회장님께서.

(조병선 부회장, Convention Co Chair):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골프를 그 비싼 곳에서 치면 누가 올 것인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데 신용계 동문이 골프를 맡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71년도 동기들에게 이메일을 많이 보내고 올 사람을 총동해서 다음 사람을 또 움직였습니다. 저의 동기에 김성환, 김일영, 두 전직 회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 워싱턴 모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을 해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주광국 재무): 동문이 178명, 부부가 합해서 약 300명이 참가하셨습니다. 68년 동기가 27명 총 54명이 참석했고 서울에서 7명이 왔습니다.

(사회): 네, 첫날은 250명이 넘어서 좌석을 배정하는데 전문가가 등장하여 1시간 전에야 허락이 떨어졌지요. 너무도 많이 오셔서 자리 배정이 힘들었습니다. 즐거운 비명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그러면 라플 티켓을 많이 팔아서 큰 공을 세우신 분을 소개합니다.

(Mrs. 주광국): 저는 라플 티켓을 팔 때에 한 테이블당 백불 어치를 사면 더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더 빨리 쉽게 팔 수 있었지요. 제가 장사에는 소질이 있지요.

(사회): 네, Mrs 주광국께서는 이 뿐만 아니라 68년도 동기들에게 '에델바이스' 합창을 연습시키신 장본인이시며 누구보다도 공이 많으신 분이지요. (ㅎㅎ)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두 분은 첫째로 Buffalo에서 오신 한승신(76) Scientific Co Chair와 또 한 분은 이번 행사에 이틀에 걸쳐서 멋진 사회를 맡아주신 백승원(79)동문입니다. 골프, 노래, 춤, 사회, 완전히 장내를 장악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요. 이 동문이 도와주셔서 속이 탁 트이고 정말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을 꼭 잡아야 된다고 다음 회장단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둘째날 저녁 1등 상금 1000불을 멀리 뉴욕에서 오신 한영수(67) 동문이 받을 때까지 한 분도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면 다음은 non-CME사회를 맡으신 Mrs. 조병선님.

(Mrs. 조병선): 저는 그 주말 내내 교회, 동창회 사회를 보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다음 날도 또 다음날도. 그냥 사회를 본 것조차도 기억할 수 없이 바빴습니다. 보람된 일이었다고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사회): 그러면 시계탑에 삽화를 그려주신 Mrs. 신용계께서 한 말씀.

(Mrs. 신용계): 저는 그 전에 성함이 비슷한 서인석 전회장님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ase Ball을 치기 위하여 Bat를 들고 흥판을 치실 서윤석 회장의 두뇌와 지구력을 그 삽화에 그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남편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이 일을 통하여 여러 동문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것이 좋았습니다. (박수 박수)

(신용계): 날씨가 더우니까 물은 물론, 오이, Cherry, 바나나 등을 샀지요. 어떤 때는 바나나를 너무 일찍 사서 썩어서 다시 사기도 했어요.

(사회): 그러면 여행을 맡으신 김철 동문의 부인께서 한마디.
(Mrs. 김철): 저는 저 사람이 여행을 맡았다고 해서 걱정 <다음면에 계속>



한글과 朝鮮 Korea을 사랑한 Homer Hulbert 이야기

이 회 경(61, 대뉴욕)

1883년 가을, 뒤늦게 쇄국정책에서 깨어난 朝鮮 (고종의 초도 미국방문 공사 일행이 미국 동부 연안 순회沿道의 하루를 뉴햄프셔 주의 Dartmouth College (이하 DMC)에 들리게 된다. 전통 조선 관리복장을 한 이들의 방문은 DMC 역사에서 비교적 모호한 순간이었지만 강의실 창밖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이 초면의 진기한 행렬을 내다보는 졸업반 첫 학기를 갖 시작한 Homer Hulbert (Class of 1884)에게 그의 기구한 장래를 향한 운명적 발판의 순간이었다. 그는 이웃 버몬트 주에서 자란 英才로 DMC의 설립자이며 초대 학장이었던 Eleazar Wheelock의 三代孫으로 대학 진학까지는 예측된 선택을 하였든 것이나, 그 이후로 전개된 그의 생애는 예상 밖으로 놀라우며 우리 한인들에게 유별하게 감명적인 역사적 이야기이기도 하다.

DMC 졸업 2년 뒤 Hulbert는 전도 사업 준비과정에 있던 뉴욕의 Union Theological Seminary를 떠나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조선으로 가게 되었던 것인데, 미국 연방 교육청장 John Eaton의 초청의 결과였으며 그분은 Hulbert의 선배(DMC Class 1854) 동문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다. 소임은 서울에서 처음 생기는 관립 영어학원(育英公院)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1886년 조선에 도착 즉시 그는 조선의 언어와 역사공부에 몰두하였는데 한글의 소리나는 대로의 표기하는 알파벳이 놀라게 간명하고 과학적이며 배우기가 쉬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배우기 쉬운 한글의 전파가 국민의 지능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중국엔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민주화로 정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한글의 저력에 대한 신념의 일부로 그는 한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한글로 쓴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1895년에 발간하였고, 10년 후 1905년엔 이

조 실록을 직접 섭렵하여 History of Korea를 영문으로 발간 했던 것이다.

Hulbert는 현재 한글의 중요한 요소가 된 문법의 변화도 제의하였는데, 예를 들어 단어들 사이 띄우기, 콤마, 종지부, 그리고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쓰기 등 이었다. 그의 제자의 한 사람인 주시경은 훗날 한글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Hulbert의 제의를 많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는 서재필과 함께 최초의 순 한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을 악보로 만들어 보급한 주인공이기도 했다. 육영공원에서 근무하면서 제중원 학당에서도 학생을 가르쳤는데, 1888년 9월 미국에 일시 귀국하여 메이 한나와 결혼하여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 조선 정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육영공원을 축소 운영하게 되자, Hulbert는 1891년에 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1893년에 그는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조선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는 감리교 출판부인 삼문출판사의 책임을 맡았으며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성부에 오기 전 그는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 출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으며 신시내티에서 신식 인쇄기를 들여왔다. 1895년 2년간 휴간했던 영문 월간지 '한국소식'을 다시 발행하였고, 그 해 8월에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하였다.

동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언더우드와 에비슨과 함께 고종의 간청으로 그의 침전에서 불침번을 섰다고 한다. 1897년 5월 조선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한성사범학교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관립영어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1900년부터 1906년까지 현 경기고등학교의 전신 관립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일본 섭정의 부당성을 지적

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현 동대문교회인 볼드윈 교회를 맡아 담임 목회를 하였다. 이때 외국 서적의 번역 작업과 외국에 대한 한국 홍보 활동을 벌여 많은 서적과 기사를 저술했다. Hulbert 부인도 이화학당에서 음악을 가르쳤으며 외국인 자녀들을 자신의 집에서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1905년 Hulbert는 고종황제의 밀사로 "한국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막아 달라"는 친서를 지참하고 Washington으로 갔으나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청원을 무시했다. 그때 이미 그는 일본과 "조선과 필리핀을 바꿔 치기 하기로" 밀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투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Hulbert 박사

2년 후 1907년 Hulbert는 다시 한번 고종의 밀사로서 세계평화회의가 열리는 Hague로 가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3인의 초대받지 않은 한국 대표들과 합류하여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과 대한제국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포하려 했으나 일본과 영국 연맹의 방해로 발언권이 봉쇄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Hulbert의 한국 귀환도 금지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주로 워싱턴에서 40여년을 한국 Korea의 주권회복을 위해 정부 요청과 사회단체에 탄원과 강연을 하며, 한국에 관련된 논설과 저서를 다수 출판하였다. 1949년 여름 86세인 그는 그의 옛제자이자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로 독립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리웠던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된다. 그러나 긴 여행의 여독으로 인한 폐렴으로 청량리 감리교 기독교병원에서 방한 7일에 사망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사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시신은 양화진(楊化津) 외국

인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 그의 첫째 아들 헬턴은 2살 때 사망하여 이미 양화진에 묻혀 있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으로 떠나며 기자들에게 건넨 말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라는 유언이 그의 墓誌銘이 되어 남아있다.

사 후

Hulbert의 많은 저서 중: History of Korea (1905)는 외국 역사가들의 중요한 참고서 역을 하고 The passing of Korea(New York: Doubleday, 1906)는 가장 널리 읽혀지는 명작으로 알려지다.

1999년 은행가이며 오랜 Hulbert 연구자인 김동진 (Author of "Crusader for Korea") 주동으로 Hulbert Memorial Society가 설립되어 그의 기일인 매년 8월 5일에 한글학회 등 관련단체와 애호가들의 기념 모임이 있고 근래의 여론 조사에서 그는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 국가공로자로 나타난다.

2013년 7월 大韓民國國家報勳處 주관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Hulbert의 이름과 사진을 서울시 지하철과 역을 장식하는 특별 추서 행사를 거행하였고, 동년 12월 서울시는 종로구 당주동 주시경 마당에 주시경 조형물과 나란히 선 Hulbert 조형물을 건립하였다.

상 훈

- 1) 1950년 3월 1일,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 (독립장) 추서.
- 2) 2014년 10월 9일에 한글 보전과 보급에 헌신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 추서.

[Dartmouth Links]

2015년 Dartmouth Alumni Magazine에서 본 The Choson One (by Karl Schutz '14 and Jun Bbm Sun '14)이란 제하의 벽안의 한 Dartmouth 졸업생의 한글과 조선 사랑 이야기는 敬意로운 충격이었다. 온라인에도 관련 기사가 많이 있었다. The Choson One을 발췌번역하고 온라인에서 선별 추가하여 이야기를 짜 보았다. Hulbert와 필자의 아들 James (Class 1984)는 학번 차이가 100년이자 생년월일마저 단 하루가 다른 100세 지간이고, Choson One 공저자 Karl Schutz and Jun Bum Sun (Class 2014)는 Hulbert의 (Class 1884) 130년 후속들이다.

<전면에서 계속> 했습니다. 골프는 많이 좋아하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여행은 안 된다고 큰 일 났구나 하며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얼굴이 마음이 좋게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들 일을 부탁하는데 한다고는 하고 아무 일도 안하지요 아시다시피(ㅋㅋ)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행 일을 뜻밖으로 잘 해낸 것을 보니 아마도 사회장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사회): 아입니다. 김철 동문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창송(58) 동문이 지팡이를 두개를 짚고 Luray Cavern을 참가하실 때도 끝까지 뒤에 남아서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회식이 '희빈'에서 있을 때도 맥주까지 따로 주문해야 된다고 해서 모두들 그 사려 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하셨지만 신용계, 주광국, 김철 이 세 분 삼총사들은 미국대통령을 해도 되는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들임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서울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지만. (ㅎㅎㅎ)

그러면 신원석 총무님을 내조하신 Mrs. 신원석 한마디 하시지요.

(Mrs. 신원석): 사실 저의 남편은 개업에 무척 바쁘지요. 어떤 때는 이메일이 오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대답을 하기도 하지요. 틈이 없어요. 밤 10시까지.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대답하는 일도 있고 해서 환자가 두 번 이메일 대답을 받는 수도 있어요. (ㅎㅎ) 그런데 이번 일을 하는 데 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대의

원회 초록도 대신 쓰기도 하고(ㅋㅋ). 워낙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박수 박수)

(사회): 그러면 다음으로 Registration Desk에서 수고하신 Mrs. 김병오님.

(Mrs. 김병오): Front Desk에 앉아 있는 분들이 좀 외로웠어요. 많이들 시간당 당번제로 나누어서 하면 좋았겠어요. 가끔 강의도 교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오시는 동문들에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았어요.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시작종이 울렸을 때 큰 공을 세우신 동문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주평(68) 동문입니다.

(김주평): 저는 5월 31일 서울에서 첫날 오시는 동문들을 비행장에서 서회장님과 같이 마중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젓트 스트림으로 한 시간 빨리 도착했음을 그날 아침 4시간 전에 알았지요. 서회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냥 예정대로만 나왔거든요. 제가 그날 나가서 한 시간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을 다행히 마중했습니다. 서회장님이 좀 더 있다가 합류하여 우래목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그날 저녁에는 Lansdowne Resort에 묵으면서 이 멀리서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제가 평소 애진 빛을 조금 갚은 것 같습니다.

(사회): 그러면 Registration Desk에서 일하신 부인 여러분들도 한마디만.

(부인들): 이번에 이름표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좌석을 매일 다른 색깔로 표시하여주셔서 혼잡을 피할 수



방문중 참석하신 이민섭 서울대학교동창회 삼임부회장(전 문화체육부장관, 4선 국회의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후 Poster를 정리하는데 다음해부터는 그것을 발표한 동문들 즉 당사자들이 끝날 때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메뉴를 정하는데 사무실 Mrs. Jamie Kim과 Mrs. 신용계, Mrs. 서윤석, Mrs. 김병오, Mrs. 주광국, Mrs. 김진수께서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사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하지 못하신 김진수 선배님께서서는 1년전 저를 돕겠다고 하신 사나이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한마디 하십니다.

(김진수 Convention Chair 전화 통화): 저 김진수는 이번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서회장님을 도왔습니다. 서회장님은 아시다시피 포용력이 대단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경험을 소유한 동창회 사무실의 Mrs. Jamie Kim의 지혜와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

록 이 점을 기억하시고 동창회 사무실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처럼 임원들의 화목과 단결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김진수 선배님 내외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덕분에 또 멀리 서울에서 오신 강신호 선배님, 박용현 동기님, 그 외에도 국내외로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또 오시지 못해도 묵묵히 회비를 납부하신 수많은 여러 동문들의 성원으로 큰 과오 없이 44대 회기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이 경험과 결과가 빛을 발하여 동창회의 앞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심 없이 지난 일 년간 저와 함께 심혈을 기울리신 여러분들의 우정에 감사합니다. 힘은 들었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이 이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린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小鹿島 有感

김 응 식 (55, 아틀란타)

소록도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속해 있는 국립소록도병원(國立小鹿島病院)으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한센병(나병) 전문의 치료기관이 있는 곳이다. 섬의 이름은 그 형상이 작은 사슴 모양과 같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일컫고 있다. 전에는 녹동항에서 배로 가면 5분거리였으나 2009년 3월에 소록대교가 개통되어 육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 나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5월에 설립된 소록도 자혜의원으로서 그 후에 소록도 갱생원(1957년 12월) 국립소록도병원(1960년 7월 1일) 국립나병원(1968년 11월 8일) 국립소록도병원(1982년 12월 31일)이라 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병원의 설립 당시에는 한센병 환자의 강제 격리수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나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고 치료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직업보도 및 한센병에 대한 연구 등 기본업무를 하고 있다.

국립나병원의 개칭은 국내 유일한 나병치료센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국내에 있는 4개의 나병원(국립 용호병원, 국립 익산병원, 국립 칠곡병원, 국립 부평병원)들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나눔성치유자에게 현지 정착을 시켜 사회복귀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당시 나병에 대한 편견과 사회인식이 부족하여 정착민과 일반민과의 분쟁은 심하여 사회에 까지 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감아 아들이 문제가 되어 그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서 같은 방에서 공부를 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며 돌을 던져 교실 유리창을 깨는 등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고관은 자기 집에서 한 미감아를 양자로 삼아 키우는 등 한센병에 대한 보건계몽에 앞장서기도 한 사실이 있었다.

나는 보건사회부 보건국 만성병 과장(나병관리, 기생충 및 미약관리)에서 1969년 5월 5일에 국립나병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받아 취임 하였다. 그 당시 환자 수는 5,000여명이었고 종사하는 직원은 400여명 이었다. 직원의 대부분은 보건사회부 소속 이었으며 소수는 체신부, 문교부, 법무부 등에서 파송근무 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중환자실을 비롯하여 7개 마을에 각각 치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진의 진료업무가 시행되었다 병원은 원장 아래에 의료부, 서무과, 복지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부에는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약제과, 간호과 등이 있다. 또한 치유자들의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소개 알선도 있었다.

어느 날 짚차를 타고 순시중 둔덕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노인 환자 한 분을 보았다 나는 그분에게 다가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더니 땅을 파서 마늘을 심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한다. 오른 손목을 보니 신경마비로 하수(下垂)가 되어 있어 그곳에 새끼로 호미자루를 동여 매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니 인간의 힘이 얼

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았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삶에 도전하는 그의 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소록도 마늘이 육지에서 재배된 것에 비하여 훨씬 굵고 좋다는 평을 받았다는 소식도 접했다.

함남 함주군 출신인 시인 한하운 선생은 젊은 시절에 갑자기 이 병에 감염되어 한센병자가 되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나의 슬픈 반생기, 보리피리, 전라도 길...”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 있다.

여기에 소록도병원을 찾아 걸어가면 서 지은 “전라도 길”의 일부를 소개한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필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카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도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내가 한 선생을 만난 것은 국립 부평병원 이었는데 걸어서 보기에 무척 딱한 함경도 사투리를 쓰며 비록 음성치유자이지만 같은 고향인으로서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소록도는 아열대의 따뜻한 기후에 맑은 공기와 더불어 녹색식물로 덮여 있는 자연의료양지라고 하겠다. 깨끗한 바닷가는 주기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사슴 뿔과 같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여망을 치고 썰물때를 기다리면 도다리, 가재미, 농어, 게 등 수십 가지의 어종들이 잡히고 있다.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몇 포대씩 잡아서 근처 부락에 배정도 하고 그날은 일미있는 부식으로 제법 화려한 밥상이 되었다.

한센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손과 발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국내 및 해외에서 지망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관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지망한다. 해외에서 봉사하려 오신 분들 중에는 196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두 수녀 머리안느 스티거와 마가렛 피사렛이다. 고흥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20 후반의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온 이후 2005년 귀국할 때까지 40여년간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일생을 헌신했다 그들은 한센인의 노령화 및 장애가 심하여 치매, 정신 질환으로 오는 자력생활(대소변, 목욕, 식사 및 외출)을 도왔다. 그들은 간호사이지만 한센인들에게는 ‘할매’로 불리며 검소하고 소박하게 한센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최근엔 환자의 수가 오륙백 명 정도의 수로 줄었다는 희보(喜報)를 듣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센병이 이 땅에서 병명조차 사라져서 오래된 역사 속에 서만 남아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지없는 바이다.



Quinine and Centrum-Silver

Young C. Shin (59, Maryland)

The sun
is scorching, the air is simmering,
and everybody is sweating.
But not me.

I start
to feel malaise, and then chills; quickly followed
by quivers. I cover myself with a quilt.
One more layer of quilt. I know what this is.
Much milder but very similar attack
the day before yesterday.
It is endemic in our area.

My mom
is ready today. She hands me two capsules of quinine.
“Swallow one at a time. Don’t chew! Remember?”
I put one capsule in my mouth with some water,
and swallow - only water goes down.
I try again with some more water - same thing happens.
Meanwhile, mom keeps repeating the demand;
“Swallow whole thing, my child!
You are my brave boy! You can!
You swallowed rice and Kimchi all right at breakfast!”
I try again - same failure.

The capsule
melts in my mouth, spilling incredibly awful bitterness.
Mom’s face becomes distorted and contorted with
frustration, restlessness, tightness, anger ...,
with trembling hands.
I try again. Swallow some more water and melted capsule.
One more to go. Now, determined to please mom.
But I end up repeating exactly the same thing.
The bitterness is stronger than my will power.
I throw up everything - melted capsules, saliva, what I
ate for breakfast - on to the floor, all over the place.
Mom cleans the floor, says nothing.
I see tears in her eyes.

“Mother!”
“Seventy-two years have passed since.
I swallowed a big pill this morning; a multivitamin pill,
Centrum-Silver.
Mother, it is Mother’s Day today.
Mother’s Day! Again, without you!
Mother! I’m not ... crying ... Not even sobbing.
No, I’m NOT! I’m just ...”
“I’m your BRAVE BOY!”

기 가사를 적어본다.
세상에 올때 내 맘대로 온건
아니지마는(existentialism-existence
precede essence)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돌새 없이
나는 뛰었지(capitalism-competition)
이제와서 생각하니 꿈만같은데
두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 봐야지.

노년을 사는 지혜

정정수 (62, 후로리다)

유교의 비조인 공자는 論語에서 자기의 말은 모두 이전부터 있던 것일 뿐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니고 서술했을 뿐 이라면서 述而不作 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한 유명한 극작가는 1-2막에서는 현실사회의 變化無常, 덧없음, 비참한 사실들을 연출해 가면서 종교의 이상향 천국, 극락의 조용함(quietism) 무변화, 영원함(eternity)을 갈망하다가 원하는대로 천국이 살아다가 3막에서는 하루 휴가를 받아서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방문했는데, 동네아이들의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 자기 가족과 친지들의 아기자기한 현실적이고 정다운 이야기를 다 엿듣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 천당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기 아쉬워하는 3막의 내용으로 대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조금 유식하게 극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 가요대전에서 김성환 가수가 부르는 인생이란 노래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나 와닿는 점이 있어 여

현대 물리학 우주생성에 나는 너무 알고싶어 공부-노력해 왔는데 big bang 이전에 quantum fluctuation이 일 정 크기, 일정 기간 이상 존재하면 big bang - big inflation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고- multiverse, parallel universe 가능 하다니 望八을 내일 모레 바라보는 나는 the unknowables로 간주하고 色即 是空 空即是色 2600년전에 불타님의 말씀 믿고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불타님의 가르침 따라 天有不測 風雨 人有朝夕禍福 人間不覺 如冥冥 夜行-萬事從寬 其福自厚라는 가르침을 따르도록 수양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겁게 살다가 入寂 - 우리 가족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묘지에 내 흔적을 남기고 주님 품 안에서 절대 평화를 누리게 합소서 라는 epitaph를 남기 려 한다.



제33차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를 돌아보며

한 승 신 (76, 학술대회장)



지난 9월 제33차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를 준비해 달라는 서윤석 회장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몇 차례의 계획된 해외여행과 그 밖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 선뜻 하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었다. 우선 지난 몇 년간 학술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강유구 선배님께 전화를 드려 제32차 학술대회와 동창회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능하면 다시 수고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하였다. 강 선배님은 제32차 학술대회가 지난 다른 학술대회와는 달리 많은 젊은 세대(GP) 동문들이 참여한 색다른 학술대회였다고 하며 젊은 세대 동문들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여로 인한 학술대회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나로서는 젊은 세대 동문들의 학술대회참여를 주도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33차 대회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강선배님으로부터 지난 몇 년 학술대회 준비관계로 다른 중요한 일들의 진행에 무리가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 동창회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GP) 동문들과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학술대회 준비에 협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될수록 많은 젊은 세대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그로인한 (많은 구두발표 계획시 필요한 시간 제약, 개인당 15분) 학술 대회의 질 손상을 막고 일반 동문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회를 이끄는 데 있었다. 그 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 동문들 중 이미 연구 경력이 성숙된 동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panel discussion과 아직 성숙되지 못한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는 poster session을 새로 학술대회에 첨가하는 것이었다. 젊은 세대(GP) 위원장 남명호 동문 및 한창규, 남영재 동문들과 상의한 결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젊은 세대 동문들이 종양내과, 병리학, 영상의학과, cancer research 및 regenerative medicine research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학술대회의 theme를 'New Horizons in Medicine'으로 정하고 그 안에 세 가지의 소제목, 1) 'Personalized Medicine' 2) 'New Developments in Medical Imaging' 3) 'Regenerative Medicine/Stem Cell Research'를 선정 하였다. 또한 panel discussion의 제목을 요즈음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Personalized Medicine'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남명호 동문이 그 panel을 organize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는 panel moderator를 Lung Cancer 연구의

권위자이신 최찬혁 선배님께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 좋은 panel presentation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덕분에 panel presentation은 잘 진행되었으나 panel presenter들이 따로 앉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병과 Cup, 질의응답과 토론을 위해 마련된 microphone 등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 panel presentation이나 poster presentation 등 새로운 project를 첨가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준비물들을 착오 없이 마련해 둘 수 있도록 check list를 만들면 좋겠다. 이번 panel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panelist들이 그들의 연구 분야의 National Meeting,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참석을 위하여 panel 발표 후 몇 시간 내에 공항으로 떠나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동창회 회장단들께서는 컨벤션 날짜를 결정할 때 미국 내의 Major Scientific Meeting과 겹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Panel presentation 이외의 다른 oral presentation들은 주로 성숙된 젊은 동문들의 전문분야와 일반 동문들이 관심이 있는 Diabetes, Alzheimer's disease, Stroke, Neurosis associated with smart phone, COPD, Orthostatic Hypotension, Zika Virus, Golfing and Sports Medicine, The interplay between mobility, cognition and emotion in aging 등으로 선정하였다.

Poster presentation은 9명의 젊은 세대동문 또는 동문 2세가 참여해 주었으며 그 topic들은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과학 연구가 반반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Poster Session을 처음 열어 본 결과 poster들을 전시할 장소와 poster size 결정 등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김진수 컨벤션 위원장님이 poster를 올려놓을 easel들을 손수 구해 오시고 한창규, 남영재 동문들의 poster 선정 등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poster session이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린다. Oral과 Poster 발표자들을 합하여 모두 30명의 발표자들이 선정되었고 그중 17명이 젊은 세대(GP) 동문들로 발표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학술대회 구성을 볼 때 젊은 세대 동문들이 주류가 되어 활동하게 됨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다른 동창회 활동에도 많은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번 학술 대회를 더 빛내주기 위하여 멀리 한국으로부터 참석해 주신 석학 이흥규 교수님, 강대희 학장님, 조영민 비전추진단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흥규 교수님께서서는 현대인들의 당뇨병 증가의 원인에 대해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셨고 학장님과 단장님께서서는 예년과 같이 학교소개 등에 발표를 제한하지 않고 이번 학술대회 주제에 맞는 'Personalized

Preventive Care for Cancer'와 'Personalized Medicine for Type II Diabetes'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동문들이 한국과 미주에서 서로 협력하여 좋은 연구를 계획하고 또한 비교 검토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젊은 세대(GP) 연사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참석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를 부탁하는 어려움이었다. 다행히 서윤석 회장님의 배려와 generous support로 내정되었던 젊은 세대(GP) 연사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동창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위한 젊은 세대(GP) Fund 모금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창회 일들을 맡으실 차기 회장단들에게 가능한 한 젊은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임기 초기에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세대동문들의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panel discussion을 포함한 몇몇 젊은 동문들의 발표들은 일반 동문들이 이해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조금 너무 전문적이긴 하지만 질 높은 학술발표와 토론은 젊은 세대의 professional development와 networking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scientific session 중 2 session은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관심있고 그들의 지적 교류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CME Certificate 발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규호 선배님, Malaysia 회의 참석후 미국으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피곤을 무릅쓰고 명강의를 해 주신 오무연 동문님, 프로그램 인쇄 전 마지막 교정을 보아주신 이선희, 한창규 동문님, 모든 연과 준비에 도움을 주신 Jamie Kim,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 발표하신 여러 동문님들과 참가동문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학술대회는 더욱 알차고 동문님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젊은세대(GP) CME 발표상 수상자 송경민(09) 박은경(00)과 강신호 명예회장, 서윤석 회장

Pre-Convention Golf 행사록

신 용 계 (68, 골프회장)



2016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Pre-Convention 골프 모임을 6월 1일과 2일 양일간 Virginia Landsdowne Resort Golf Courses에서 개최했다. 총 48명의 국내외 의대 동문과 부인들이 참석했다. 동창회 회장단이 Washington 지역으로 결정됨에 2016년 학술대회와 더불어 Pre-Convention 골프모임이 중외교제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우선, Northern Virginia에서 제일로 꼽히는 골프장중에 호텔과 banquet 시설을 겸비한 세계적인 명소, Landsdowne Resort로 합의 했다.

골프장 계약에 최소 참가 인원(45명)과 호텔 객실의 보증 요구에 부담이 되었다. 예전의 동문 골프모임의 참석자는 대개 30명 미만이었기에 임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필요했는데 다행히 이곳에 거주하는 동문들과 타주의 동문, 특히 멀리 한국에서의 68년 동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호텔, 골프 그리고 dinner banquet의 비용이 참석 인원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많은 동문의 참석으로 별 문제는 되지 않았으며 골프 dinner banquet에도 57명이 참가하였다. 금년 워싱턴 지역의 5월 기후는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기상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달전부터 관찰한 결과 기상예보는 믿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이번

골프 모임중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다행이었다. 또한 마음 쓰였던 일은 동문들의 연세가 젊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졸업연도가 64년부터 66, 67, 68, 69, 70, 71, 76, 79, 80년 그리고 87년으로 분포 되었지만 대부분의 골프 참석자는 60년대 졸업 동문시기에 건강에 대한 응급 대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더운 날씨에 큰 탈이 없이 모든 분이 18-36홀을 마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

6월 1일 Robert Trent Jones Course에서의 Callaway 우승자는 최순채(66)와 황훈규(68) 동문, 여자부 우승은 안의숙(안세현 68 동문 부인)이고, 2일 Norman Course Callaway 우승은 조병선(71)과 윤보영(87) 동문이다. 양일간의 gross score로 백승원(79)과 백희심(김진홍, 68)씨가 우승했다. 상품과 상금은 이번 회장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아쉬움이 있다면, 둘째날의 스케줄이 아침 6시 반에 아침식사가 시작해서 8시에 tee time, 2-3시경에 컨벤션 센터로 이동, 호텔과 컨벤션 등록, 4시 이사회, 동기 저녁 모임 등 너무 바쁜 일정으로 좀 더 많은 동문간의 대화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젊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좀 더 있기를 바란다.

2017년 3월 캘리포니아에서의 골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함께 해주신 동문과 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수확과 옥의 티

동문 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하고 나서

서귀숙(84, 로체스터 뉴욕)

동문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들었을 때, 그것도 제각각 전문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고 들었을 때 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다. 제 것만 해도 버거운 분야가 많은데 남의 영역이라니 말귀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이것이 내 기우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선 학술심사위원들께서, 고도의 전문분야이면서 횡적으로도 다른 전공자들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록들을 엄선해 주셨고, 각 발표자들은 깊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많은 질문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의 테마를 작금의 의학계의 화두로 등장한 'Personalized Medicine'로 설정한 것은, 그 시의적절함은 물론이요 많은 다른 전공분야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우리 동창학술대회의 지향하는 바를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대선배님으로부터 2000년 이후에 졸업한 후배들까지 각자의 분야의 핫토픽을 어깨너머로나마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학술대회에 참가한 나의 첫번째 수확이었다.

의학학을 포함 모든 학문 분야가 고도로 세분화되면서 많은 업적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좁고 깊은 학문분야의 정체(正體)성으로 인해,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로 depersonalize 되면서 학문 연구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좀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평소 가지고 있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시도한 것이 한 해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자기분야와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둘 사이에 숨어 있는 공통점을 찾아봄을 통해, 저절로

앞으로만 굴러가는 -혹은 굴러가버리는- 연구가 아니라, 그 연구가 존재해야만 하는 의미와 잠재된 가능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학 연구가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납득하게 된 것이 나의 두번째 수확이었다.

학술대회 못지않게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십 년째 계속된 이 동창모임의 강한 흡착력이었다. 많은 대선배님들이 그러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 와서 '내가 Nothing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으로 서로 열심히 뛰어야 했을 때,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 내 능력을 얼마쯤 예누리해서 팔아야 했을 때, 두 개의 컬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가 도대체 뭘은 결정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 학창시절 뿐 아니라 그 후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는 동창들의 존재 자체가 큰 버팀목이었으리라. 세월이 지나 이제 survival mode에서 enrichment mode로 바뀌고, 그전처럼 절실한 서로의 상담 요청이 아니라 느긋하게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이런 장(場)과 기회에 감사하고 편안해 하시는 분위기를 나는 읽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어려움은 우리 세대나 우리의 후배님들 세대도 여전히 각자 다른 모양으로 겪고 있

다. 그것도 'I am doing this all alone.'이라는 강박관념에 압도당하면서... 이번 모임에 참가해서 선배님, 후배님들을 보며, 이제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으며 나를 다독여줄 수 있었던 것이 세번째 수확이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대이상의 수확을 만끽했지만 첫날부터 의아하게 생각되는 옥의 티들도 있었다. 우선 학회 발표장에서 수시로 휴대전화의 울림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전 오후 세션이 바뀌어도 이 현상이 계속되는데 이에 대해 안내나 협조 요청도 없었다. 다른 학회와는 달리 동질한 집단이 선후배로 모여 있으므로, 1:1의 동등한 관계에서 하기 쉬운 사무적인 요청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한편, 두 번의 banquet 모임에서는 성장(盛裝)한 참가자와 좋은 음식으로 고조된 분위기였고 흥을 돋우려는 진행자의 수고가 두드러져 보였다. 그런데 사회자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많은 테이블에서 아담곳 하지 않고 각자의 담소를 계속해 주목(注目)이 잘 되지 않았다. 당연히 배경 소음이 상당히 되어서 사회자의 발언이나 내빈의 인사말도 내용을 알아듣기는 힘이 들었다. 학회 발표 중에도 가끔 출입문이 열리면 복도에 있는 참석자들의 환담 소리가 방해가 될 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라 일축할 수도 있고, 더욱이 친목과 화합이 우선인 동창회 모임의 열기를 식혀버리는 발언일수도 있으나, 우리 동창회가 면면히 흐르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제 서서히 paradigm shift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매뉴얼의 정비를 포함한 순조로운 하우스키핑일 것이다. 앞에서 우리 동창회 학술활동이 여타의 학회에 비해 돋보이는 부분과 일반 학회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문 분야의 횡적인 연결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말한 바 있다. 우리 학술활동의 빼어남은 유지하면서도, 여타 학회가 다 지키고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도 함께 검토를 하여, 우리의 유니크한 장점이 '시시한' 단점으로 접수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무릇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독창성이 보편성의 기반위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적다. 이제 우리 동창 학회의 외적인 단장을 제안해 본다.

1. Housekeeping안내용의 PowerPoint slide를 준비해 휴식 시간 등에 상영한다. 내용에는 그날 또는 다음 날의 일정안내,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 협조 요청, CME Form 등 사무적인 절차안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학회장에 질문자용 보조 마이크 설치 (호텔의 설비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면 좌장과 발표자에게 자기가 대답하기 전에 무슨 질문인지 청중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3. Banquet시 자리 배정 검토(한 번은 졸업연도별 좌석 배치, 또 한 번은 다른 선후배와 교류할 수 있도록 졸업연도를 섞어서 앉도록 한다.)
4. 휴식시간이 끝나갈 때 차임 등을 써서 다음 세션 시작이 임박함을 알린다.

- 로체스터 대학 영상의학과 교수



남명호 이선희 오무연 한창규 동문들과 GP 멤버들 한창규 동문과 서운석 회장 신원석(88) 동문

33차 컨벤션이 성공적이었던 이유

고애자(Mrs. 이운순 58, 대뉴욕)

1. MC와 singer를 우리 동문이 직접 진행하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그들은 professional을 능가하니까 ...



2. MC 백승원(79)의 노래는 감정이 풍부했으며, 꽃같은 부인과 함께 찾던 춤은 단연 호랑나비, 노랑나비들이 나는 듯 했고, 우리가 매년 subscription으로 가는 American Ballet를 연상시켰다.

(사진: 백승원 동문 부부)

3. 첫째 날은 동기들의 모임이 있었고, 둘째 날은 formal feast가 있었는데 Hors d'oeuvres가 없었다는 것이 정식 디너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

셋째 날 Grand Banquet은 저녁이 늦어지고 관광 다녀오는 분도 많아 잘 차려진 오르되브르는 효과적이었으며 랍스터, 크랩 케익 디너는 balance 맞는 Banquet feast였다.

4. DJ는 좀 엉터리여서 막간을 이용해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전혀... 분위기를 지루하게 만들

과 동시에 MC를 힘들게 하였다. 서울대 NY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아름다운 classic music theme으로 순간순간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르르 나왔다가 사르르 들어가면서 DJ의 기교를 보여 줌과 동시에 분위기를 우아하고 기쁘게 하였었다.

5. 컨벤션 장소도 잘 정해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델라웨어 등 여러 근변 주에서 차로 올 수 있는 많은 동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성공적 요인이었다. 호텔에서 person당 charge 하지 않고 room당 charge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6. 이전에는 골프 시상에 비중을 많이 두어 non Golfer들에게 반감을 샀으나 이번에는 재치있게 적당히 진행을 해서 좋았다.

7. Door prize로 20개나 되는 많은 cash prize를 준비했다는 것도 파티를 흥겹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8. Non CME에 닥터 이명희(66)의 '장수과학'은, Johny Carson Show보다 더 재미있었다고 닥터 정정수(62)께서 stage에 Joke 하러 올라오셔서 언급하셨고, 닥터 이명희는 부인 국영순(소프라노) 여사의 연주가 있을 때면 부인의 coat와 소지품을 들고 뒤따라다니는 모습이 마치 Maria Callas 남편이 하는 것과 같이 보였다. 가까운 후배로만 지내다가 이번에 그의 숨은 천재성을 나타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데 많이 놀랐다.

9. CME에 오무연(89, Physical Medicine) violist(not violinist)로, 박종효(85, Pediatric)는 cellist로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커플이다. 그들과 수 년



71년 졸업 동기들

간 이곳 Racquet club에서 테니스를 같이 치곤 했는데 그들의 숨은 실력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 놀람과 동시에 기뻐했다.

10. 우리는 컨벤션으로 가는 길이 가장 즐거운 휴가이다. 이유인즉 교가에 있듯이 "인재들이 다 모였구나!"를 항상 느끼게 하고 실상 뛰어난 천재들이 많이 모여 웃음을 터트리게 하기 때문이다.

11.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차에 low tire pressure sign이 나왔으나, 8천마일 밖에 안된 새 차이기도 하고 길 떠나기 전 딜러에 가서 완전 준비를 한 상태여서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휴게실에 들렀을 때 완전 flat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하이웨이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런데 우선 서운석 회장께 감사 드린 마음이 들었다. 이럴수가 ...

12. 집에 돌아와 보니, 바닷속에서 해엄치던 물고기가 마치 산에 올라온 양 routine이 잘 되지 않아 어리벙벙했다. 동창 친구 남편은 아침을 남편 혼자 해결하기로 contract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civilized된 부부인가! 한없이 부러웠다.

34회 다음 Convention을 기다리며,

성공적인 연례학술대회

김영애(Mrs. 김성환 71, 남가주)

Washington DC에서 올해 열린 33차 연례학술대회는 한마디로 성공적이었다. 최고의 학문으로 구성된 CME Program과 지적 정보에 흥미와 재미로 더해진 교양 프로그램인 Non-CME Program 모두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순서들이 잘 계획되었고 또 조리있게 정리되었다. CME Program이 많은 의학적인 정보와 학문적인 면에서 향상을 주었다면, Non-CME Program은 지적인 면에서 흥미로움까지 더해져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컨벤션에서는 서운석 회장님을 위시한 여러 임원들의 애쓰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아름답고도 기억에 남을 컨벤션이었다.

학문의 높이가 세계적인 서울의대동창회의 이번 컨벤션이 무척 자랑스럽고, 행사에 참가했던 것이 올해 내린 결정 중 제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서운석 회장님 및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강신호 명예회장 / 이건일(68)신임회장 / 박용현 명예회장 / 강신호, 박용현 명예회장님과 강대희, 서윤석, 이건일, 오인환, 김용재, 박중신, 조영민



제2회 함춘 미주공로상을 수여하는 강대희 학장 김의신, 조세진, 시계탑 편집위원회

서윤석 회장과 강신호 명예회장



그랜드 방콕에서 65년 동기들과



66년 동기들



합창을 하고 있는 68년 동기들



서울에서 참석하신 손님들과



58년 동기들



59년 동기들



김주평, 노영일, 김명원, 서윤석, 이건일, 송찬호



공로패를 수여하는 서윤석 회장과 김상우, 이원택, 서인석 동문



여자부 골프 우승자 Mrs. 김진홍(68)



댄스를 즐기는 동문들과 다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동문들(아래)



북미주 동창회 사무장 Jamie Kim 부부



GREEN PROJECT CORNER July 2016

2016 Convention, Green Project section report



Continuing the last year's large Green Project member participation, this year marked another successful turnout and events that were filled with substance, meaning and learning. The GP scientific sessions were interwoven with the general sessions as fewer platform slots were allowed this year, yet the talks covered a broad range of topic/subspecialty with depths. So much so that there was even a theme presentation on personalized (precision) medicine.

Repeat presenters (last years' GP presenters who presented again at this year's convention) seemed to have gaine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udience and they "personalized" their talks to this particular audience. It

Post-convention comments from the members:

어느덧 미주동창회 모임이 고향에 내려가는 명절인듯 기다려집니다. 낯설은 얼굴도 동문후배라는 이유 하나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이국땅에서 삶을 일구어오신 선배님들과 풍성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울의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은경 올림

미국에 온지 7년만에 처음으로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을 만나뵙게 된 반갑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동문회가 소통과 나눔의 자리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신정임 올림

I had a really great time at our SNUCMAA annual meeting.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up-to-date information and see other friends and alums.



signaled that we (senior vs. junior, clinical vs. research, one specialty vs. another) are being integrated at a deeper level than before.

As for the GP social, this year the Association tried a new format (split banquet/GP forum) in which all young members were allowed to leave the hall after the ceremony and dinner to form their own group to socialize and discuss GP-specific topics. The first night, the GP forum was on the new website (how best use the website for the young alumni group) and on the second night,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survey results were presented to the members (see below for a separate article by Dr Myong Ho Nam). The current president Dr YS Seo and the new president Dr KI Lee also joined the forum, presenting an opportune time to introduce ourselves and to meet the new president.

The Sunday farewell breakfast was arranged at Woo Lae Ok restaurant by Dr MH Nam (GP chair) and sponsored by Drs JA Kim and S Hahn (Scientific Committee chair). There we had an opportunity to hear some feedbacks, along with more face time with members one on one. So many interesting and diverse ideas were shared even in these brief moments, and so many laughs! We will attempt to delve into each idea in the coming editions of Sigetop, but for a starter, we have an article contributed by Dr Seo Gwy Suk 서귀숙 (below).

Lastly, Dr Jong Ho Na (graduate of 2014) successfully matched in Psychiatry, Mayo Clinic and he contributed an article "Pay it forward" for Sigetop. It is self-explanatory and the story is (in part) the fruit of the Association's new collective effort on the Green Project movement. Good luck Dr Na and thanks for thanking Sunbae!

- Sunhee C Lee (81), Sigetop Committee

Adding multi-generational fun events or multi-paths experience sharing could help better understand and learn among diverse range of age groups. I like the generous support from senior members and board members and would like to ask the support again, until we can provide the same support for the next generation of alums. - Youngtae Jeong

작년에 이어 올해 컨벤션에 GP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우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고 생소한 분야임에도 경청해 주시는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작년에 만났던 GP 선후배님들과 다시 만나담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내년에는 더 많은 GP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 Kyung Min Song

I am overwhelmed by so much positive energy and enthusiasm from the GP and non-GP members during the 2016 SNUCMAA-NA Scientific Convention. I thank all members for their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and for another successful year of new GP movement. Many thanks to Drs. Hyunseok Kang and Youngtae Jeong who graciously accepted the 2016-2017 Green Project team leadership to place the seed for West Coast GP movement. This GP leadership consists of GP proper members who truly understand the GP members' needs. I hope they will receive the unconditional support from the SNUCMAA-NA executive team, as we have in the recent past.

- Myong Ho Nam

Green Project와 Pay it forward

나 종 호(14)

"At the end of the day it's not about what you have or even what you've accomplished. It's about who you've lifted up, who you've made better. It's about what you've given back."

2000년에 개봉한 영화 <Pay it forward>는 한 소년(할리 조엘 오스먼트 분)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시골 중학교의 Social Studies 교사(케빈 스페이시 분)가 수업 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학생들에게 주문하자, 소년은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받고, 그것을 돌려주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받은 대가로 'Paying something back'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하지만 소년은 반대로, 'Pay it forward'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소년이 말하는 'Pay it forward'는 아무런 대

가 없이 세 명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세 명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보통의 Paying it back이 그냥 두 사람간의 상호 작용으로 끝나는 반면, paying it forward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선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소년은 제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꼬박 일 년 전인 지난 2015년 5월, 저와 아내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설렘도 잠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웠던 미국 생활은 막막한 경험의 연속이었고,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매치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미국 의대생들이 증가해서 외국의대생(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의 매치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소문은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미국에 도착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부부는 뉴저지에서 열린 2015년 북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컨벤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미국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는데, 실제

로 앞서서 길을 걸어간 선배님들을 직접 뵙고 나니, 저희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컨벤션 기간 내내, Green Project 선배님들은 불안한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조언들을 주셨습니다. 레지던트가 되기 전 과정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때라며 위안을 주셨던 선배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컨벤션 기간 내내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컨벤션 기간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저와 아내 모두 레지던트 지원에 필수적인 observership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추천서를 비롯하여 물심양면 큰 도움을 받았고, 레지던트 인터뷰를 다니면서도 곳곳에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인터뷰 당시, 후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뷰어(interviewer)를 자청하시고, 인터뷰 후

저녁을 사주셨던 대선배님도 계셨습니다. 지난 1년간, 각지에서 수많은 동문 선배님들을 뵙 수 있었고, 그럴때마다 선배님들은 저희에게 아낌없는 도움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저는 올해 레지던트 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지만, 지난 일년간 그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대해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Pay it forward 해주신 많은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미래에는 그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미국에 건너오는 후배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영화 <Pay it Forward>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개봉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실천해주신 선배님들께 지면을 빌어써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Summary of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Survey

After the Green Project (GP) White Paper Parts I and II were published in October 2015 and January 2016 of Sigetop, a survey containing 17 questionnaires was distributed to the SNUCMAA-NA general membership via various routes including Sigetop inserts (paper survey) and e-mail/Facebook (Survey Monkey). A total of 55 responses were received with many incomplete sections (see selected data below for detail). These data were presented at the 2016 alumni convention in Virginia during the special Green Project forum on 6/4/2016 with both current and future Presidents of the Association present.



Several results were worthy of notice:

1. Approximately 80% of the respondents including the older age groups stated that they agree with the authors' opinions expressed in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2. Approximately 30% of the responses were from the "GP (proper members)" (currently defined as those who graduated within the past 20 years).
3. Approximately half of the GP members and alumni currently in practice (non-retiree)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supporting new graduates through various options such as providing mentorship, financial support and participating in the annual convention.
4. Handful of GP members showed willingness to lead/participate in the SNUCMAA-NA activities including organizing GP functions and recruiting additional GP members.
5. E-mail was vastly preferred as the primary mode of communication (>90%).

This survey had many shortcomings including low response rates from non-GP members especially from those graduated between 1973 and 1989, frequent undelivered e-mails indicating a strong need for updated e-mail addresses, and an extremely high rate of incomplete responses to most of the open-ended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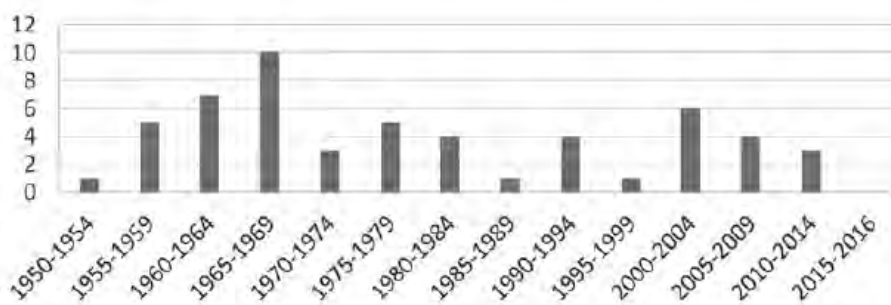
However, some of the notable suggestions included:

1. Assign recent graduates in the US to identify and connect with the newest arrivals, who will be most helped by the Green Project.
2. Create an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MEXIM (a SNUCM students' club for those who seek training in the US) and SNUCMAA-NA. Our new website (under construction) may be able to establish this.
3. Active recruitment of the GP (proper) members to the GP committee leadership. This is already happening in the new 2016-2017 (west coast) GP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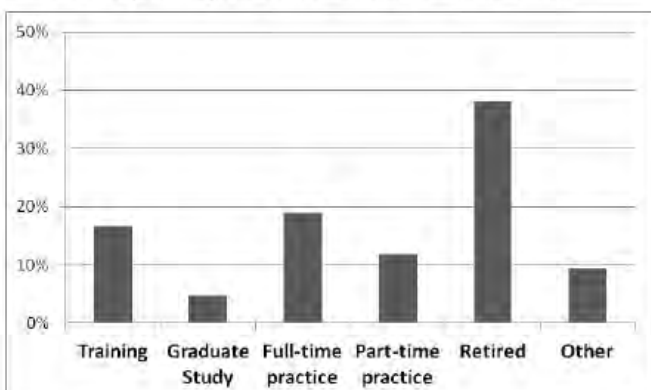
Overal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is no real generational gap among members in the ideas and approaches on how to assist the young generation to ensure the future of the Association. It was refreshing to know that there is a sense of unity and goal for the future of the SNUCMAA-NA and this was supported through different generations. The SNUCMAA-NA's future may not be so bleak after all!

- Myong Ho Nam (81), Chair of Green Project,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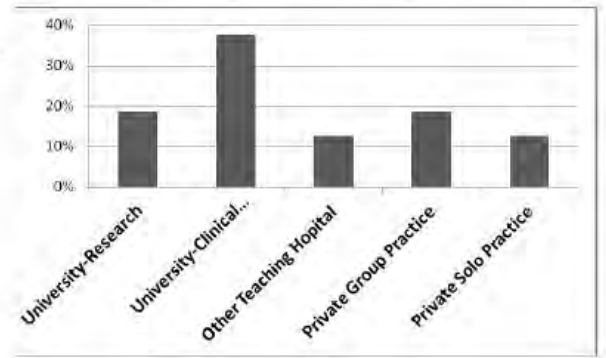
Q: What year did you graduat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4 answ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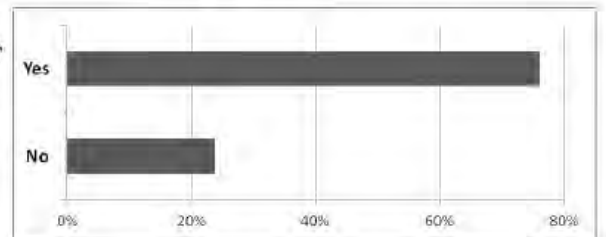
Q: Where are you in your career track? (54 answ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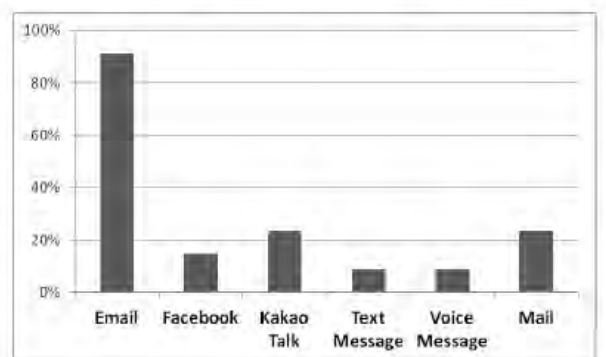
Q: If you are currently practicing, what is the practice setting? (22 answered)



Q: Overall, do you agree with the authors' opinions expressed in the White Paper? (53 answered)



Q: What are your preferred modes of communication (choose all that apply to you)? (45 answered)



Q: What is your gender? (53 answered)
Male 78% (42), Female 22% (12)

Q: If you graduated from SNUCM before 1995, will you be interested in becoming an honorary GP member? (35 answered)
Yes 29% (10), No 71% (25)

Q: If you are interested in becoming an honorary GP member, do you practice in academic/graduate training setting and are able to provide mentoring/externship opportunity to GP proper members? (9 answered)
Yes 44% (4), No 55% (5)

Q: If you are interested in becoming an honorary GP member, would you be interested in offering donations towards GP fund? (11 answered)
Yes 91% (10), No 9% (1)

Q: If you graduated from SNUCM in or after 1995, are you willing to lead/participate in SNUCM-AA activities? (17 answered)
Yes 76% (13), No 24% (4)

Q: If you belong to GP proper group, are you interested in creating or participating in GP-specific social functions? (12 answered)
Yes 67% (8), No 33% (4)

* This survey would not have not been possible without the hard work of Dr. Kyung Min Song and Ms. Jamie Kim and the support of past President Dr. Youn Seok Seo.

2017 Convention Green Project Scientific chair

정영태 (01)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GP(젊은세대) Scientific chair를 맡은 정영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임상을 하시는 대부분의 동문들과는 달리 줄기세포와 암 분야의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 스탠포드의 대 방사선종양학과의 instru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은 2008년 봄, 대학원 과정 중 처음으로 참석하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에서, 이제까지 GP를 이끄셨던 선배님들과 한참 위의 30-50년 차이 나는 선배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Annual Convention은 마음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며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8년이 지난 이제는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저도 좀 더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갖 직임을 맡은지라 좀 더 속고해 보아야 하겠지만,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전임 Scientific chair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보다 발전된 Scientific session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처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세션, 그리고 career development를 통해 이제 갖 미국에 도착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50년 정도에 걸쳐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세션, 인공지능과 원격진료 등을 필두로 점점 다가오는 미래의 의학과 의료에 관한 세션 등을 꾸려보면 어떨까 하고 잠시 스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회장님 이하 다른 임원진 동문 선배님들의 지도 하에 잘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수고해 오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벽 2시. 아내와 내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다. 아내는 꿈에 미숙이를 보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고 걱정한다. 나도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내가 꿈에 미숙이를 보았다 하면 그날 틀림없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곤 했다. 미숙이는 아내가 대학시절 단짝이던 친구로 늘 붙어 다녀 연애시절 내가 질투심을 느낄 정도였다. 나도 꿈 이야기를 했다. 요상한 꿈이었다. 아내는 까르르 웃으면서 당신 꿈은 개꿈이야 한다. 사실 내 꿈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실험에서는 동물도 틀림없이 꿈을 꾸는데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가능할 수가 없다. 개라고 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것은 인간의 오만일지 모른다.

수면에는 4단계가 있는데 가장 얇은 잠이 1단계이고 가장 깊은 잠이 4단계이다. 우리가 잠을 자면 이 네 단계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자는 것이다. 가장 얇은 잠 근처에 렘수면(REM,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눈알이 빠르게 움직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뇌파를 찍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꿈을 꾸는 것이다. 기억을 하든 못하든 하루밤에 약 두시간 정도 꿈을 꾸는데 일생을 통해보면 약 6년을 꿈나라에서 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꿈도 꾸지않고 죽었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꿈을 안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기억하지 못할 따름이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면, 즉 렘수면을 차단하면 점서잠애가 오고 정신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꿈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와 맞먹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진흙판이나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고대 중국사람은 잠자는 동안 영혼이 육체를 떠나 꿈나라를 방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인은 꿈의 신 몰페우스가 우리에게 예언이나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잔 버니언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천로역정을 써서 신앙생활의 바른길을 제시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꿈에 토끼굴에 빠져 신비한 동화의 세계를 체험한다. 케플레는 꿈에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보고 벤젠고리를 발견해 냈다. 좋은 꿈, 나쁜 꿈, 악몽, 태몽, 등등 꿈 이야기는 셀수도 없이 많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꿈의 해석에서 꿈은 억눌린 욕망, 특히 성적욕망의 표출이라고 했다. 꿈을 분석하므로써 무의식세계를 내성하여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융(Carl Gustav Jung)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매일 매일의 경험이나 감정이 무의식속에 침전되어 있다가 꿈으로 나타나는데, 동족, 인류의 원초적인 경험까지도 복합적으로 저장되어

(Archetype) 각종 상징이나 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꿈의 분석을 정신치료(Psychotherapy)의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꿈은 정신(spirit)이나 영혼(soul)의 현상인가? 육체는 이승에서 영혼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일 뿐인가? 아니면 정신이나 영혼이냐 꿈이나 신체적인 기능의 일부인가?

옛날 사람들도 마음이 신체의 어떤 장기의 기능일까 궁금해 했다.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의 장기라고 심장(心臟)이라 했다. 담즙이 검게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melancholia, 자궁이 뒤집히면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난다고 hysteria, 이장이 잘못되면 화를 잘 낸다고 spleeny, spleenful, 횡격막이 갈라지면 미친다고 하여 schizophrenia, 흥선이 회전하면 감정이 널뛴다고 하여 cyclothymia,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스의 플라톤은 마음이 뇌의 기능이라고 처음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여지껏 누구도 확실하게 증명하지는 못했다.

뇌는 초정밀 컴퓨터와 같다. 1.5kg 밖에 안되는 뇌에 870억(87billion)개의 뇌신경 세포(컴퓨터 칩과 같은 것)가 있으며 이것이 100조(100trillion)의 연결고리(synapse)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초정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알파고 가 이세돌이를 이겼다고, 인공지능이 인간 두뇌를 앞질렀다고, 흥분하는 것은 엄청난 난센스다. 수백대의 컴퓨터가 합작하여 그것도 인간의 조정에 따라 바둑 한판 이겼다고 인간의 뇌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바둑 두는 기능은 뇌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그보다 수천 수만 더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정신활동이나 감정 등은 컴퓨터가 아직 흉내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수면중에는 불침번 서는 소수의 뇌신경만 깨어있고 다른 뇌신경은 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서간에 서로 정보교환이 잘 안되고 생각이나 형체가 융합, 치환되고 상징화 형상화 되어 보이는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약의 부작용으로 생생한 악몽을 꾸는 불평을 가끔 듣는다. 신경전도화학물질(neurotransmitter)의 장난임이 분명하다. LSD는 환각을 초래한다. 말하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이다. 우울증도 요즘은 화학적 불균형(chemical imbalance)라고 한다. 환자들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신체적 결함이라고 하면 도리어 안심을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나 영혼은 뇌의 기능인가? 꿈은 뇌에서 만들어 지는 것인가? 뇌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가? 나는 반세기를 뇌와 뇌질환을 다루어 오면서 이 질문을 오래 간직하고 풀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

나는 가끔 절벽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다가 팔에 힘이 빠져 수만길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꾸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다가 깨어 보면 현실세계에 살아 있는 것이다. 나는 죽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꿈에서 깨어나듯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옛사람들도 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하지 않았던가.

꿈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다.

"친구 하나"

- 벗 양찬기(63) 돌아간 소식에

잘 가시게
떠난 친구
'돌아'간 친구/친국가는 친구

(마지막) 벗 보내는 노래/우리 맘아픈 노래
망연히 하늘보며 먼산보며/우리 슬픈 노래
주마등 우리 지나온 노래/
우리 헤지는 노래 벗 배웅하는 노래
...

어렸적
뽕양계 뛰 놀던
여리디 여린 순한친구 하나/착하다 착한 친구야

중학
고등적 같이/빠났던 귀골루
날리던 친구야/별두 따올듯 그랬던 우리 친구야

대학
(옛과적 본과적) 같이/잘났던 무리루
산으로 바다로 쏘다니구/
펼 펼뒀던 젊음 그 흰하던 그적 친구야

우리 뒀
더 큰 꿈이라구
넌 먼 데(왜) 우리 와 열성으루 비집구/
동떨어진 여느고향 우리 또 비비구 만들던 친구야

우리 뒀
어차피 외로우니 오며가며
되도록 모여 심겁게 서우줄아/
우리그저 보며 화알짝 서로 묵은애기 박장웃던 친구야

원래가
넌 점잔해
목소리나 낮으막 만면에스그 미소/
우리 온 좌중잡던 양반같은 우리친구야

우리나
다 상놈이면
오직 하나 당신은 양반/
그만함 남두 다 알아본 천하사랑만 이 친구야

마났님
바쁜 일정따라
옆에 붙어 가방들구 뒤따라 말년/
누가봐두 행복하던 양반 이 친구야

그런 말년
털털 굶은 웃음
아뭏일 정녕 없이/
우리께 여직 환히 늘 웃던 근래스 친구야

얼마전/이번에두
금방 지난겨울 엇그제나데
매해 같이 지 고장 올랜도
골프치구 저녁먹구 술도 여러순배 눈에선한/
안타까운 친구야 야 야 아쉬운 친구야

(떨쩍는던)얼마전 여러사람 철렁/그눔웃 몫쓸 병
손 안쓸 결정/떠날 회한
맘달래 맘 편히 목상으루 뵈었다던 친구야
...

오늘 새벽 '돌아'갔다네
떠나간 친구야
영 영 이젠 없어라 가까운 친구야/
보고플 친구야 그닥 양반같은 이 친구야

잘 가시게 평생친구 이 양반야 가까운 친구야
친국/만 세상 정녕 얼마나 좋겠네
게서 다시보면 또 만나서 그-으-런 반색/
그럼 참 좋겠네 그때 얼마나 친국 좋겠네.

(졸지에 벗 영전에, 숙연히 이홍빈 '63 6월21일 2016.)

제1회 시계탑 우수 작품상 모집

우리 동문들과 배우자들의 시계탑 원고 투고를 장려하고 예술, 문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 작품상을 실시한다.

A) 작품 종류

- 산문부문; 수필, 기행문, 체험기, 풍트, 문학평론 - 시부문; 시, 시조, 동시, 영시
- 사진부문; 예술사진, 기록사진, 일반 사진 - 농담골목 부문

B) 응모자격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비를 현재로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

C) 원고 규정과 당선작 발표

모든 원고는 2016년 7월호부터 시계탑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2017년 5월에 심사하며 6월에 발표한다.

산문은 편당(A-4)용지 Words process 10 point로 4-5매 이내, 다른 잡지나 신문, 언론, 인터넷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시계탑에 게재되는 것에 한한다.

- 심사는 시계탑 편집위원회 전 위원이며, 사진 심사는 조의열(66), 김명원(68)이 관할한다.
- 상금; 각 부문에 1등(200불), 2등(100불), 3등(50불)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시계탑 편집위원회

조선의 일을 찾아서

은퇴 후 제주섬에서 봉사생활 십팔개월

이 석 규(70, 남가주)



1973년에 시작된 미주 이민 37년은 길고도 짧은 세월이었다. 2010년 말 소아알러지 의사를 접고 은퇴생활로 들어서긴 내 일생에 커다란 전환기였다. 마치 3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서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은퇴후 우리가 빌려서 살아온 미주땅의 원주인이었던 미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빛 갠을 2년 동안은 원주민 부락에 소아과 의사로 봉사하며 지냈다. 허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나라에 빛도 갠아야 쫓기에 의대동기 학형의 주선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제주전 초빙교수생활이 벌써 4년째 접어드니 제주 섬이 이젠 우리 부부에겐 제3의 고향이 된 듯하다. 이제 두 달 지나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니 그동안 통틀어 18개월에 떠돌이 교수로서 격고 배운 회고담을 적어서 동문님들과 기쁨을 나누고저 한다. 우선, 낯선 곳 제주섬에 적응하기, 계획에 없었던 혼자서 자취로 살아본 눈바람 많던 작년 겨울 5개월, 조선의 네 가지 열, 다행히 다시 만나 같이 다녀본 추억의 여행, 끝으로 겨울방학동안에 읽어 본 30권에 소설이 야기와 마지막으로 학교봉사중에서 또 요양원 봉사해 본 기쁨을 적어 보고저 한다.

첫해 봄학기는 의예과 일학년 생도에게 의학영어를 가르치는 과목마다 새로 준비하느라 영어숙제 교정하랴 바빴지만 제주섬을 돌아보느라 즐겁게 지냈다. 딸네와 손주 셋들과 한라산을 열두시간 오르고 내리느라 힘들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여태까지 한라산을 5번이나 등반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 각별 조심하라는 선배교수의 충고가 들어 맞았는지 크게 다친 적이 있다. 한 저녁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덩굴어 넘어져서 뒷입술에 찰과상을 입고 부풀은 입술로 강의실에 선적이 있다. 독수리도 제 '테리토리' 밖에는 잘 안 간다는 충고가 생각난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갑자기 미주 나성으로 돌아갈 일이 생겨서 작년 한겨울 제주섬에서 뜻밖에 폭설로 하얗게 덮힌 백록담을 교정에서 올라다 본 일이다. 전기숯밥이나 라면정도나 할줄 알던 내 실력으로 식사가 어려웠으나, 다행히 아이패드나 나성에서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아내의 지침으로 된장국, 찌개, 카레라이스와 오무라이스랑 김치도 담가먹었으니 영양부족은 안 걸렸지만 식사꺼리 걱정없이 지냈던 가정생활에 안 사람에게 감사가 새삼스레 느껴지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음악을 크게 켜고 혼자 일과를 재점검해 보아야 하기에 홀로 살기에 힘든 점이 다. 글썽 감의시간을 까맣게 잊은 적이 한번 있다. 칠십이 넘어서 건강증이 생기나 의심도 해 본다.

나는 이번 겨울에 독거하며 찾아본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열'이 무엇일까 고심하며 대학도서관에서 연구해보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생명윤리의 근본원리 찾기'가 내 스스로 정한 연구과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열'

을 밝히면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윤리를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근세의 철학자와 국문학자를 섭렵하는 중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늘, 우리, 점과 멋이 그 네가지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 하늘, 이것은 우리 옛 어른의 무속의 하늘님과 조상숭배에서 엿볼수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살려'는 윤동주의 시구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아닐까? 제주 섬에서 우리 옛 혼백의 사상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도 입춘굿이나 4.3 위령굿을 온마음이 모여서 드린다. 우리 조상의 혼이 제사때마다 내려와 같이 음식을 나누며 '내가 소원한 후에도 내 자손들이 모여서 날 기억하며 날 먹이겠구나' 하는 제사 예식이 나의 영혼불멸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둘째로 '우리, 가족, 일가가 나, 자신, 혼자'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70% 가량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현대 서양에서 팽대하고 있는 의료윤리결정의 우선이 '개인 존중'인 것과 얼마나 대조적이며 우리의 가족중심이 한국의 특징이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정-우정-인정'을 중요시한다. 온정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며 어쩌면 자비로운 사람이니 핵가족, 독거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에 치료제가 되며 한 많은 우리 민족에 살필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멋-흥겨움'을 들고저 한다.

교육철학자 한기헌과 시인 조지훈에 의하면 '멋들어짐과 흥겨움'은 우리 조상의 미학적 소산이요 귀한 보배라고 지적한다. 우리 노랫가락과 춤은 같이 참석하고 맞소리를 추겨주는데 있다. 우리 음악 산조에선 북소리의 추김새가 따르고 제주굿에선 참가하는 이들이 굿떡을 나누어 먹는다. 우리 가락은 멋들어지고 부채춤을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물놀이에 장구춤과 머리모자의 긴 끈이 펼쳐지는 기쁨에 박수가 아까울까? 제주도 민요 동그래당실 노래에 나는 저절로 덩달아 춤출에 빨려들어 간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멋, 정, 우리와 하늘은 우리 조선의 네 가지 열이라 나는 알고 싶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뜻있던 옛 추억을 다시 찾아 재현해 보는 기쁨을 느꼈다. 20년 전에 천치연폭포에서 신랑신부옷 사진을 같은 곳에서 다시 찍어보는 즐거움과 43년전 결혼 밀월여행지인 온양 온천을 방문해 보았다. 이번 재밀월여행은 지하천천을 무료로 서울에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경험이었다. '코끼리도 결국엔 제 난자로 간다'던데 우리 칠십 넘은 부부가 가 보니 감회가 없을소나? 1970년도에 월남으로 출정했던 옛벗이 45년 만에 월남참전지를 더듬어 보는 기쁨도 우리와 같은 이유일 게다.

끝으로, 이번 겨울동안에 세계명작 중에 미루어오던 소설책 30여권을 독파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번역판으로도 세 권인데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복잡하여 따로 적어가면서 또 유튜브에서 영화도 곁들여서 보니 제주섬에서 '신선노름'이라면 반론하는 이가 있으랴!

2주전에 멀리 5개월이나 '벌거'하던 아내가 드디어 돌아와서, 오늘은 '성 이시돌 요양원'에 가서 하모니카와 플

자연인(自然人)

정인태 (64, 조지아)

강물도 구름도 흘러가도 되돌아 오고
바람도 불고가도 되돌아 오도다
사람이 그와 같아서 다시 온다 하건만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오고 머언 훗날에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또 흐른 후에야
착하고 순한 사람들만이 다시온다 하노메라

백수가 되고 나서

이 건 일(68, 남가주)



K명원, 완전 백수가 되었소?
아직 part timer 인줄 알았는데,
나는 백수가 된 후, 특히 이곳 California로 이사온 후 더 바쁩니다.
일주일에 골프 두 번 치고, gym에 2-3번 가고
가끔 최철 선생에 이끌려 등산 하고,
영화보러 가고 송, 홍, 최, 신 선생들과 점심이나 저녁 같이 먹고
낮잠 한숨 자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영화나 도큐멘터리 1-2편 감상 하고
비행기 회사에서 마일리지 모아서 보내주는
공짜로 보는 잡지 5, 6개 훑어 보고,
집 근처 포모나 대학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공짜로 들으러 가고,
읽으려 쌓아놓은 책이 수십 권에
송 박사가 읽으라고 준 미스터리 북이 서너 권,
책 읽을 시간이 모자랍니다.
각 나라 별 ethnic 음식점들(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중동, 폴류갈...)과
한국 음식점들, 슈퍼 마켓, 책방, 영화관, 카페가 5, 10분 거리에 있어
굳이 차멀리면 1-2시간 걸리는 LA 다운타운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살던 찐시내티에 사는 친구가 보낸 눈 오는 사진을 보면서
아이구 저런데서 어찌 살았나 싶습니다.
아마 K명원 말대로 등 떼밀려 살았나 봅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Dylan Thomas의 시구절 처럼
"노년이면 하루가 저물 때 타오르고 분노해야 하나니!"
분노는 아니라도 열심히 살아 보아야지요,
우리가 언제 맘놓고 놀아 본격이 있습니까?
노는 법도 배운적이 없이 등 떼밀려 앞만 보고 미국 땅에서
살아 남으려 이를 악물고 일만 했지요.
그리고 살아 남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때도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부터라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 봅시다.
LIFE IS BEAUTIFUL !

룻으로 어르신네들과 우리 동요를 부르며 박수치고 음악봉사하고 오후에 나 돌아왔다. 성 이시돌의 마이클 신부님께서 "우리 어르신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봉사자들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중년 넘은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이란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끄져겨 본 노래로 끝내본다.

옛벗에게 드리는 하늘로 보내는 시
기억속에 있는 옛벗 잘 있었나?

사십육년전 진해에서
군의원 교육 받을 때 같이 부르던
'보리밭' 노래 생각나나?
추억은 거의 슬픈 것 그리고
울고나면 아름답게 변하는 것
글썽, 오늘 저녁 음악회에서
그 옛날 자네와 같이
목 놓아 부르던 그 우리 노래
제주에서 봄저녁에 벗의
젊은 얼굴이 내 가슴에 다가오네
그러, 잘 있거나
만날 때 있을려나?

지난 6월 19일, Father's Day에 skydiving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몇주전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Peter가 자기가 skydiving을 하러 가는데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 것(one of my bucket list)이기도 해서 같이 예약을 해달라고 했다. 약속은 했지만 1만피트 이상 고공에서 parachute 하나(실제는 Reserve parachute까지 2개)에 의지해서 비행기에서 뛰어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skydiving은 extreme sport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데 “만일에 하나라도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skydiving에 관해 더 알아보기 위해 Google과 Wikipedia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다.

먼저 “skydiving is safer than driving” 이란 제목 아래 많은 논란이 있는데 미국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4만명, 한사람이 1년에 평균 1만 마일을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6000이고 skydiving은 34만명이 1년에 3백만 jump를 하는데 2010년에 21명, 2012년에 17명이 사망, 1년에 한번 skydiving을 한다면 사고 확률이 1/100,000,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7배나 더 높다고 한다.



Parachute도 2차 대전과 한국전쟁시 쓰던 round parachute은 전후좌우 동요가 심하고 방향조절이 어렵고 착륙속도가 빨라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륙시 안전하게 넘어지는 Proper Parachute Landing Fall(PLF) 훈련부터 했다고 한다. 현대의 square parachute은 방향과 속도 조절이 더 잘되고 착륙시 맞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내리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한다.

또 현재 미국이나 모든 서방국가들은 skydiving시 비상용 reserve parachute을 꼭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reserve parachute은 FAA Certified Parachute Rigger가 매 6개월마다 Inspection and Repacking을 해야 되고 reserve parachute에는 main parachute이 퍼지지 않고 일정 고도에 다다르면 자동적으로 퍼지게 되어있는 Automatic Activation Device(AAD)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parachute 2개가



동시에 작용이 안 되는 Double malfunction은 거의 없다고 한다.

Skydiving중 사고가 나는 것은 group jump시 skydiver들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parachute이 엉키는 경우, speed competition시 고속도로 위험한 maneuver를 하다가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 처음 skydiving 하는 사람은 경험 많은 Instructor와 연결되어서 하는 tandem jump이고 solo jump를 하려면 wind tunnel에서 기초훈련을 마치고 Tandem jump도 여러 번하고 실기테스트를 통과해서 certification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 Bush 대통령이 75세, 85세, 90세 생일 기념으로 skydiving을 했는데 Google에서 보여주는 video를 보면 착륙을 잘못해서 앞으로 넘어지고 Instructor가 그 위로 덮치는 것처럼 넘어져서 아차 했는데 다치지 않는 다행이었다. 결국 90세된 아버지 Bush도 하는데 나도 해볼수 있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6월 19일 아침, 약속한대로 Peter와 만나서 남부 뉴저지 Williamstown에 있는 Cross Keys Airport로 향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에 가벼운 바람만 불고 있어서 skydiving 하기엔 최고의 날씨였다. 도착해서 등록을 마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skydiving 회사, airport, parachute 제조회사를 소송하지 않겠다는 여러 장의 waiver에 서명을 했는데 아무 때나 마음을 바꾸면 refund를 해준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니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모양이다. Skydiving

한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01세라고 한다. 그 기록을 깨려면 나는 27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 차례가 되어 준비실에 들어가 harness를 매고 고도계를 받아 손목에 차고 고도 5000피트에서 parachute을 펴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 착륙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들어 올려서 엉덩이로 미끄럼틀 타는 식으로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의사항을 들었다.



나와 같이 Tandem jump를 할 Instructor 'Pancake'을 만났는데 Pancake이 nickname 이기도 하지만 진짜 last name 이기도 하다고 한다. 듄직하게 생겼는데 17,000번 이상 jump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더 놓였다. 나의 첫 skydiving을 사진과 video로 기록해줄 친구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로 향했다. skydiving용으로 개조한 비행기에 12명이 타고 이륙 후 급상승, 15분쯤 후에 고도 13,500 피트를 유지하고 jump 준비를 했다. photographer가 먼저 나가고 바로 뒤 내가 두 번째로 나갔다. Jump 바로 전까지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긴장이 되었지만 경사가 급한 double black ski slope에서 스키 탈 때처럼 주저주저하면 더 위험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기로 결정한 이상 숨을 한번 크게 들이 마시고 뛰어내렸다. 곧 팔다리를 펴고 face down belly-to-earth 자세로 15초 후 terminal velocity (공기

저항으로 그 이상 빨라질 수 없는) 122mph에 도달하고 거의 1분정도 8,500 피트를 자유낙하(free fall)를 하게 된다. 팔다리를 오므리면 속도가 200mph, 팔을 몸에 붙치고 head down 자세를 취하면 330mph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세계 기록은 2012년 10월 Felix Baumgartner가 기구를 타고 128,100 피트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 834mph로 음속을 돌파했다고 한다.

뛰어 내리자마자 처음 경험하는 것은 시속 120마일의 태풍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와 급격한 고도변화로 귀가 막히고 공기압력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었다.

Terminal velocity 도달하면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일정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roller coaster타는 것처럼 중력의 변화는 없었다. 어떤 사람은 낙하도중 pass out하거나 토하기도 하고 여자가 얇은 옷을 입고 했다가 젖가슴이 다 드러나 웃기는 일도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멀리 아슬라하게 보이던 지상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고도계가 5000피트를 가리키면 pilot parachute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pilot parachute은 main parachute을 풀어내서 퍼주게 된다. Main parachute이 갑자기 확 퍼지게 되면 시속 120마일로 가다가 급정거를 하는 것처럼 parachute이 찢어지거나 줄이 끊어지던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각형으로 된 slider라는 것이 있어 parachute이 천천히 퍼지게 되어있다. Parachute이 퍼진 뒤 5분간 천천히 돌면서 이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구경하면서 내려와

맞은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쉽게 착륙했다. 드디어 내려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나의 첫 skydiving을 무사히 끝내준 Pancake에게 감사하고 Peter와 만나서 high five로 서로 축하해 주었다.



십여년전 snow boarding이 젊은애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할 무렵 나도 한번 해 보겠다고 시작했더니 우리 애들이 나보고 “The World's Oldest Teen-ager” 라고 불렀다.

이번에는 한 후배가 “Old man is still young at heart” 라고 평을 했는데 skydiving이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sports 라고 생각한다.



사막에서

사막에선 보기드문 물 방울들

용기종기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

온 동네가 떠가갈듯 큰 소리로

김택수 (63, 라스베가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조사, 기행문, 서평, 그림, 사진, 서예,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졸업년도, 거주지, 간단한 작가 소개 및 본인 사진과 글에 관계되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아래하 한글 바탕체 10호 행간 160% 또는 Word를 사용한 HTML로 e-Mail로 보내주시고 모든 산문은 Letter size 용지 2매 이내, 논문이나 기행문은 4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SNUCMAA of 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Fax: (516) 365-5501
e-Mail: snucmaa@yahoo.com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1 (Wed) - 5 (Sun), 2017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Reservations: 1-800-524-4557

Main: 855-696-6715 Fax: 626-964-9535

미국 서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 Los Angeles 교외에 위치한 Pacific Palm Resort 에서
제 34 차 학술 대회와 동창회가 2017년 3월 1일 부터 5일 까지 열립니다.

알찬 학술대회와 좀 더 깊이 있는 non CME lecture program으로 정성껏 여러 동문들과 가족들을 모시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Getty Museum을 방문 하며 Joshua Tree National Park를 둘러 보고
오시는 길에 Palm Spring Outlet Mall에서 쇼핑도 즐기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 선배님들은 이번 학술 대회를 동기회로 겸하시려는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인 이상 동문이 참석하는 학년께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이 많이 참석 하시어 우기가 막 끝난 이 남가주의 완벽한 날씨에
최신지견의 학술 정보와 골프와 문화와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Scientific Convention at Pacific Palm Resort

March 3 (Fri)-4 (Sat)

Pre-convention Golf at Pacific Palm Resort

**Zaharias Course (The Babe),
Eisenhower Course (The Ike)
March 1 (Wed)-2 (Thu)**

Paul Getty Museum Tour:

**Half day Sat. pm March 4, 2017
Joshua Tree National Park & Shopping:
One day Sun. March 5, 2017**



준비위원회:

백길영(65) 장재찬(65) 김명원(68) 송창호(68) 신흥식(68) 윤병인(68) 이현령(68) 이건일(68) 최철(68)
홍광신(68) 변영석(69) 김홍서(69) 안병일(69) 김성환(71) 이성호(72) 고창범(72) 최광휘(76) 김동훈(77)
그리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남가주지역 동창회원 일동 드림